



하나대투

WEEKLY TALK



2014년 8월 25일 |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KOSPI	KOSDAQ	원/달러 환율	국고채 10년 금리
2,056.70 (+12.49 +0.61%)	566.35 (+3.83 +0.68%)	1,018.00원 (-4.50원)	3.144 (-0.005%p)



TODAY'S TALK TALK TALK

✓ Global Asset Strategy

Equity I 인구 구조론과 주식 투자론(1) (이재만)

Money Flow I 잭슨홀 연설이 두렵지 않은 금융시장 (이미션)

Q-Radar I 원엔 환율 보다는 신흥국 호조에 주목 (장희중)

✓ 산업분석

[요약본] 조선(Overweight) 연비, 조선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박무현)

✓ 기업분석

LIG에이디피 (079950.KQ) W-OLED 확산을 기다리며 (남대중)

✓ 한주간(8월 18일 ~ 8월 22일간) 기업탐방 노트

✓ 주간 투자 유망종목

한화생명 (088350.KS), 롯데칠성 (005300.KS)

아시아나항공 (020560.KS), 하나투어 (039130.KS)

파라다이스 (034230.KQ), 씨젠 (096530.KQ)

✓ 월간 투자 유망종목

KT (030200.KS), 하나투어 (039130.KS)

✓ 중장기 투자 유망종목

KT (030200.KS), 한국가스공사 (036460.KS)

✓ 스몰캡 주간 포트폴리오

엠케이트렌드 (069640.KS), 동성홀딩스 (102260.KS)

한솔로지스틱스 (009180.KS), 벽산 (007210.KS)

에스피지 (058610.KQ), 팜스토리 (027710.K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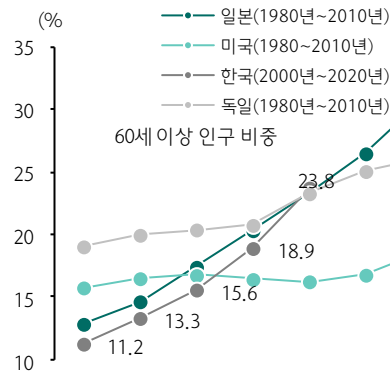
부스타 (008470.KQ)

✓ 글로벌 금융시장 Chart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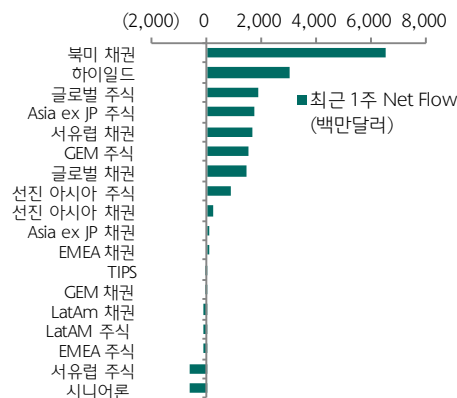
✓ Calendar



- 국내 인구의 고령화와 증시의 선진화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시점. 국내 인구 고령화와 속도를 감안 시 2000년대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
- 2000년대 당시 일본은 1940년대생이 주도.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감안 시 국내의 유사한 연령대는 1950년대생
- 2000년대 1940년대생들이 50~60대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축적된 부를 소비. 당시 주도섹터는 헬스케어와 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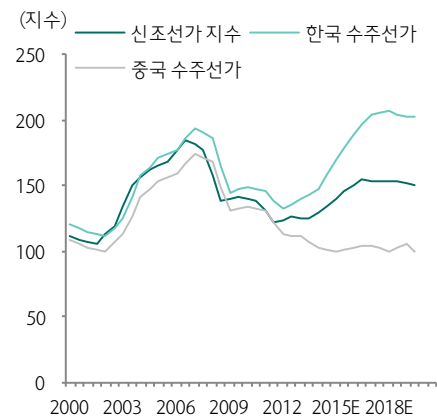
주식전략
이재만

- 잦은 연설 앞둔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북미 주식 및 채권펀드로 대규모 자금유입. 엘런의장의 완화적인 스탠스 유지와 ECB드라기 총재의 추가 양적완화 시그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 ECB 양적완화 기대감 지속되면서 서유럽 채권펀드로 9주 연속 자금 유입. 독일 2년 금리는 2012년 유로존 부채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독일-미국 금리 스프레드는 141bp로 99년래 최고

채권/자금
이미션조선/기계
박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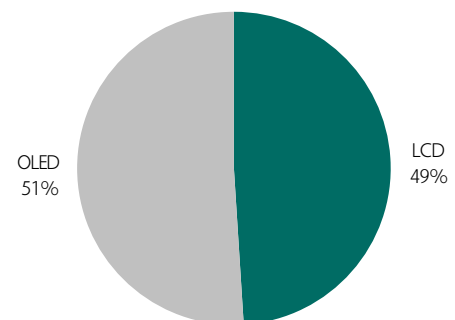
조선: 연비, 조선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 운항비용을 고려하면 중국선박 가격은 한국 선박보다 훨씬 비싸다
- 신조선 계약가 대비 중고선 가격 하락폭 역시 중국 선박이 훨씬 크다
- 중국 선사들도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기 시작

반도체/디스플레이
남대중

LIG에이디피(079950.KQ): W-OLED 확산을 기다리며

-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0,000원 제시
- LGD, BOE, CSOT 등 다변화된 고객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W-OLED 핵심 장비에 대한 공정별 Line up을 확보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
- 중국 패널 업체들 역시 LCD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 동사는 14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



Global Asset Strategy

인구 구조론과 주식 투자론(1)

국내 노령화 수준과 증가 속도를 감안 시 2000년대 일본을 고려

- 2020년 한국의 노령화 비율(60세 이상 인구 비중, 24%)은 2000년 독일(23%), 일본(23%)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노령화 속도를 보면 2010년 대비 2020년 노령화 비율은 8.2%p나 증가한다. 2000년대비 2010년 일본과 독일의 노령화 비율은 각각 7.4%p와 2.3%p 증가했다. 국내 노령화의 비율과 속도를 감안 시 2000년대 일본과 유사하다.

2000년대 일본 주도 세대는 40년대생. 2010년대 한국 주도 세대는 50년대생

- 부의 축적의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나이대는 30~40대다. 일본은 1980년대초 1인당 GDP 20,000달러 시대에 진입했고, 당시 30~40대 인구 비중도 높았다. 자산가격은 급등했다. 당시 30~40대는 1940년~1950년대생들이다.
- 한국은 1990년대초 1인당 GDP 10,000달러를 돌파했다. 당시 30~40대 인구 비중은 높은 편이었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높았다. 당시 30~40대는 1950년~1960년대생들이다.

일본의 40년대생과 한국의 50년대생의 공통점

- 첫째, 종전 직후 태어난 세대다. 가난 트라우마가 유년기를 지배했을 것이다. 둘째, 이들의 30~40대는 국가 성장의 절정기였다.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성 인기에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셋째, 저축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 부의 축적으로 활발하게 연결됐다. 넷째, 해당세대들이 자녀를 가져야 하는 시기부터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됐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 늘어났다.
- 2000년대 일본의 주력 세대인 1940년대생과 경제적/경험적으로 유사한 1950년대생이 2010년대 한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2000년대 일본과 2010년대 한국의 주도섹터는 같다

- 일본은 2000년대 1940년~1950년대생이 50~60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축적된 부가 소비로 연결됐다. 헬스케어와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2010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일본의 2000년대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950년~1960년대생이 50~60대로 진입하면서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의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3.2%p 증가했고, 한국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3%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 폭으로 보면 적어도 올해 내에는 국내 증시에서 경기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Equity



주식전략 이재만

02-3771-7547

duke7594@hanafn.com

인구 노령화와 증시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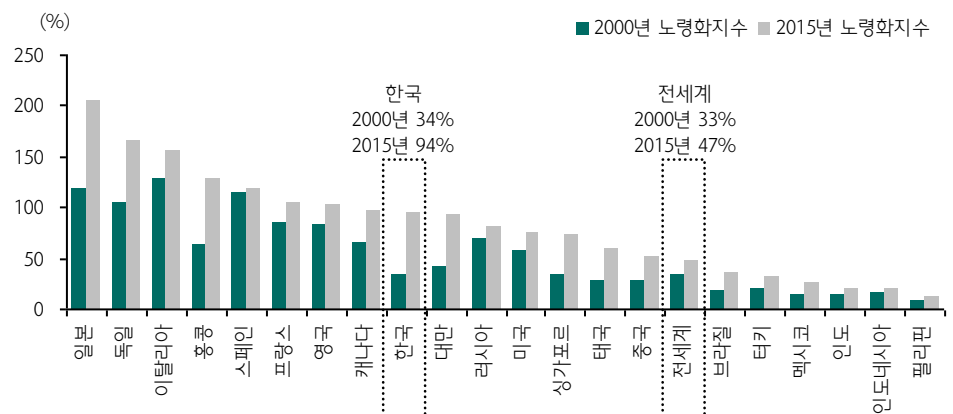
국내 인구의 노령화

경제신문을 보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는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노령화’와 ‘선진화’다. 맞는 말이다.

국내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는 2000년 34.3%로 전세계 평균치(133개국의 단순 평균)와 유사했다. 그러나 동 지수는 2015년 94.1%로 전세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노령화 진행 속도는 상당히 가파른 편에 속한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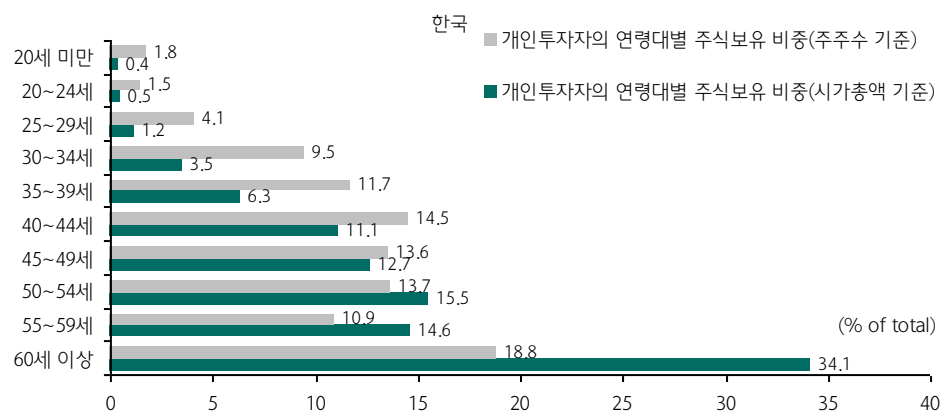
한편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별 연령대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주주수를 기준으로 19%,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34%나 된다.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2).

그림 1. 한국 노령화지수는 2000년 34%로 전세계 평균치와 유사했지만, 2015년 94%로 전세계 평균치를 크게 상회



자료: 통계청, 하나대투증권

그림 2. 국내 주식시장에서 60대 이상 인구 비중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자료: KRX,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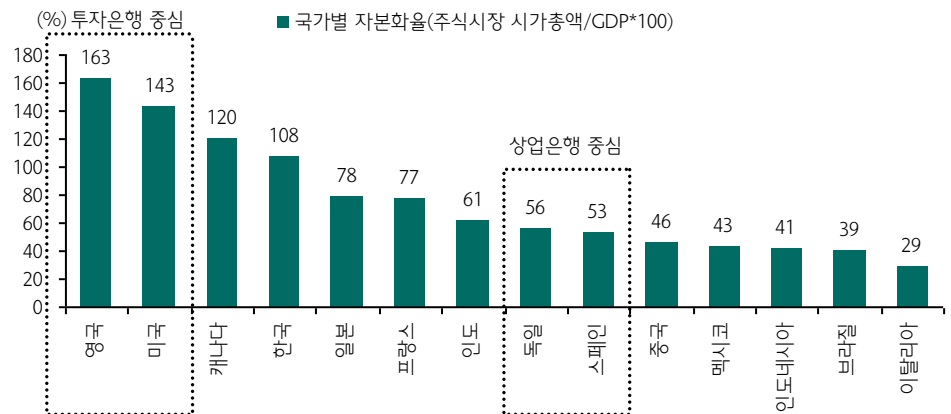
국내 증시의 선진화

한편 국내의 자본화율(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108%로 정도로 전통(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독일(56%)과 스페인(53%) 등과 같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163%)과 미국(143%)의 경우 자본화율이 10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 시 금융시장의 선진화도 상당히 진행된 편이다(그림3).

특히 섹터별 시가총액 비중 변화를 보면, 2001년 국내 증시에서 소재, 산업재, 에너지 등과 같은 투자 관련된 장치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15.4%에서 2007년 중국 효과로 인해 40.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07년을 정점으로 시총 비중은 빠르게 축소되며 2014년 현재 23.3%까지 낮아졌다. 공교롭게도 현재 미국 증시에서 소재, 산업재, 에너지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24.0%)과 유사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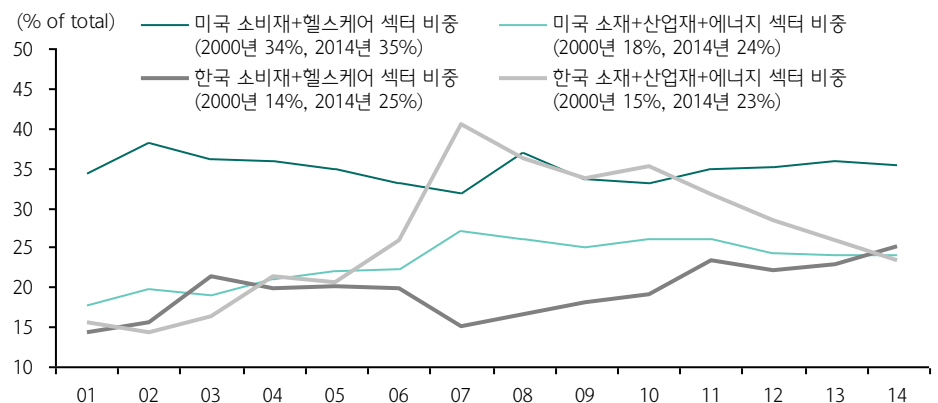
반면 소비 및 노령화와 관련된 소비재(필수+경기)와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은 2001년 14.3%에서 현재 25.1%까지 늘어났다. 국내 증시에서 해당섹터들의 절대적인 시총비중은 미국(35.4%)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4).

그림 3. 국내 자본화율은 108%.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한 유럽에 비해 높은 편. 한편 영국과 미국과 같이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한 국가들의 자본화율은 100%를 상회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그림 4. 현재 국내 증시에서 소재+산업재+에너지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은 23%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 반면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은 꾸준히 증가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노령화를 감안한 선진화

국내 노령화 수준과 증가 속도를 감안 시 2000년대 일본을 고려

인구의 노령화와 증시의 선진화가 투자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의 1980년 이후 노령화 비율(본 자료에서는 총 인구에서 60대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 변화를 보면

독일의 노령화 비율은 1980년 19%에서 2010년 26%로 높아졌다. 미국은 16%에서 18%에 높아지긴 했지만, 20년간 진행 속도라는 점을 감안 시 매우 느린 편이다.

한편 일본은 1980년 13%에서 2010년 31%로 크게 늘어났다. 독일과 미국에 비해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됐다. 한국은 2000년 들어 노령화 비율이 10%를 넘어서게 된다. UN 전망치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노령화 비율은 24%로 높아진다. 2020년 한국의 노령화 비율은 2000년대 독일(23%), 일본(23%)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림5).

다만 한국의 노령화 속도를 보면 2010년 대비 2020년 노령화 비율은 8.2%p나 증가한다. 2000년대비 2010년 일본과 독일의 노령화 비율은 각각 7.4%p와 2.3%p 증가했다(그림6).

국내 노령화의 절대적인 비율과 속도를 감안 시 2000년대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5. 한국의 2020년 60대 이상 인구비중은 23.8%로 2000년대 독일, 일본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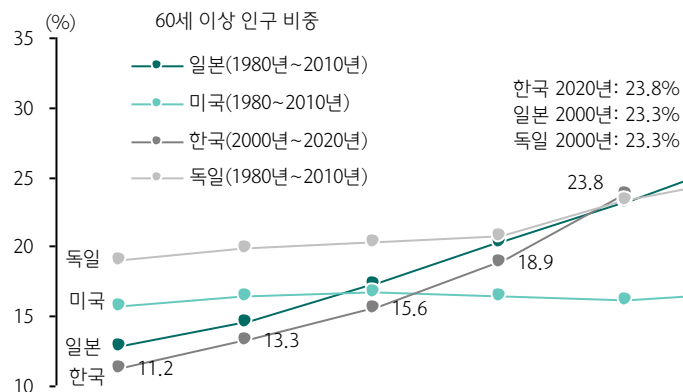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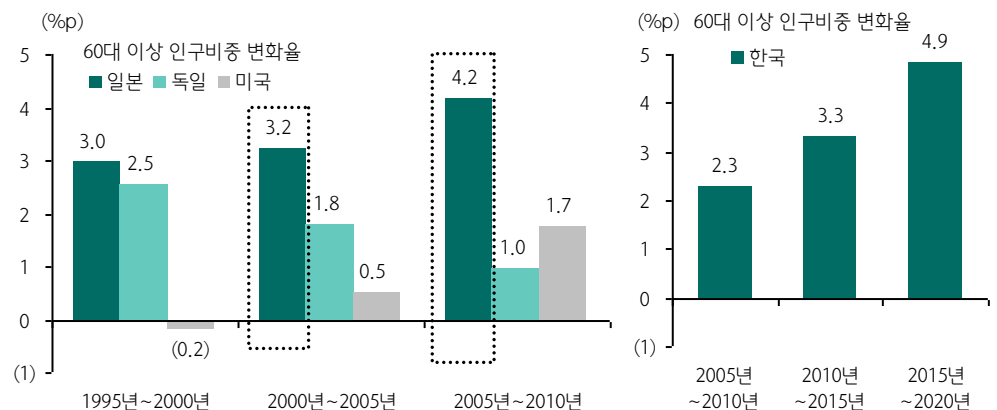


그림 6. 다만 한국의 향후 노령화 속도를 보면 2000년대 일본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자료: UN, 하나대투증권

어느 세대가 일본과 한국을 주도하고 있을까

2000년대 일본의 주도 세대는 누구인가? 1940년~1950년대생

2000년 들어서면서 일본 경제를 주도했던 세대는 누구일까? 부의 축적과 소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1인당 GDP를 수준별로 구분해서 보면 1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돌파했던 시점은 1965년, 20,000달러를 돌파했던 시점은 1979년, 30,000달러를 돌파했던 시점은 1990년이다. 연령대별로 생각해 보면 해당 시점에 부(富)를 축적하는 세대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30~40대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GDP가 1인당 20,000달러를 돌파했던 1980년 당시 연령대가 30~40대였던 세대, 1940년~1950년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 30~40대의 인구 비중은 17.1%로 20대 이하를 제외할 경우 가장 높았다. 1980년~1990년 일본의 자산가격이 폭등했던 시절이다. 부동산 가격은 연 평균 +9.3% 이상 상승했고, 1989년 말 TOPIX지수는 1979년 말 대비 +527%나 급등했다. 어느 세대보다도 부를 축적하는데 좋은 환경이었다.

1980년대 당시 30~40대는 2000년대 50~60대로 편입된다. 그 동안 축적했던 부(富)를 본격적으로 소비하는 연령대로 진입하게 된다. 2010년 당시 50~60대 인구비중은 15.1%로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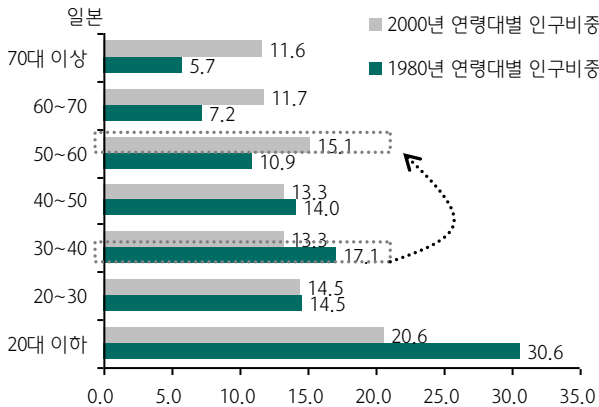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를 주도했던 세대는 1940년~1950년 생들이다(표1, 그림7, 그림8 참고).

표 1. 일본은 1940년~1950년생이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부를 소비하는 연령층으로 이전

구분(일본)	돌파 시점	부의 축적 시기 연령대: 30~40대 비중	출생년도	이후 10년간 자산가격 변화율		부의 소비 시기 연령대: 50~60대 비중	
				부동산 (%, 연 평균)	주식 (%, TOPIX 기간)	진입 시점	비중
1인당 GDP 10,000달러 돌파	1965년	16.0%	1925년~1935년	+11.8	+207.3	1985년	12.3%
1인당 GDP 20,000달러 돌파	1980년	17.1%	1940년~1950년	+9.4	+526.9	2000년	15.1%
1인당 GDP 30,000달러 돌파	1990년	13.7%	1950년~1960년	-2.1	-40.2	2010년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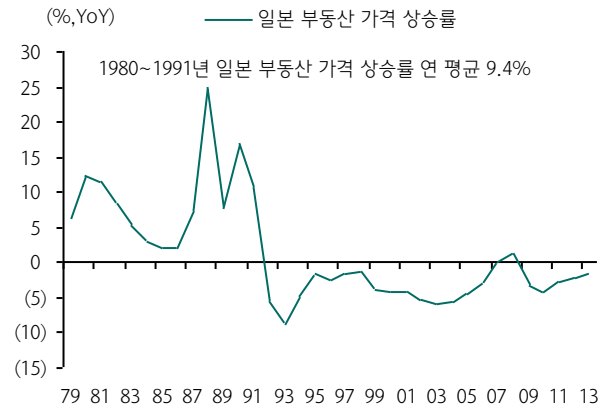
자료: UN, World Bank,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그림 7. 2000년대 일본을 주도하는 세대(1): 1980년~1990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30~40대의 1940년~1950년생



자료: UN, 하나대투증권

그림 8. 2000년대 일본을 주도하는 세대(2): 1980년~1990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30~40대의 1940년~1950년생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2010년대 한국을 주도하는 세대: 1950년~1960년대생

일본과 유사한 시각을 국내에도 적용해 보면

국내 1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돌파했던 시점은 1992년, 20,000달러를 돌파했던 시점은 2007년도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는 일본의 1980년대와 같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1999년 말 KOSPI는 1991년 말 대비 +68%나 상승했다.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까지의 주택 투자수익률[=자본수익률: 주택매매를 통한 이익+소득수익률: 거주에 따른 사용가치의 기회비용(=회사채수익률*전세가격/매매가격*100)]도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긴 했지만 두 자리대를 유지했다.

인구비중을 비교해 봐도 1990년 30~40대 인구 비중은 16.9%(1995년 18.5%)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당 연령대는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부(富)를 소비하는 50~60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세대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1%(2015년 기준)로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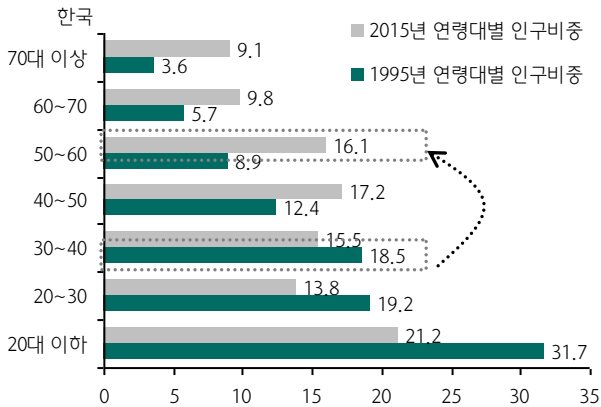
이 세대들의 출생연도는 1950년~1960년대다(표2, 그림9, 그림10 참고).

표 1. 한국은 1950년~1960년대생이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부를 소비하는 연령층으로 이전

구분(한국)	돌파 시점	부의 축적 시기 연령대: 30~40대 비중	출생년도	이후 10년간 자산가격 변화율		부의 소비 시기 연령대: 50~60대 비중	
				주택투자수익률 (%, 연 평균)	주식 (%, KOSPI 기간)	진입 시점	비중
1인당 GDP 10,000달러 돌파	1992년	16.9% (1995년 18.5%)	1952년~1962년	+12% (1996년~2002년)	+68.2% (1992년~1999년)	2012년	16.1% (2015년 기준)
1인당 GDP 20,000달러 돌파	2007년	17.4%	1967년~1977년	+8% (2007년~2013년)	+6.0% (2007년~2013년)	2027년	16.2% (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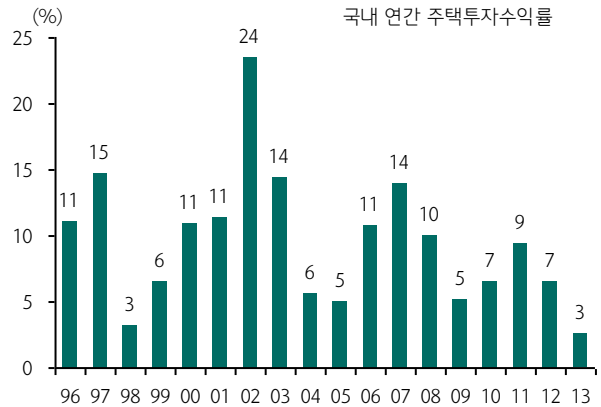
자료: UN, World Bank,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그림 9. 2010년대 한국을 주도하는 세대(1): 1990년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30~40대, 1950년~1960년대생



자료: UN, 하나대투증권

그림 10. 2010년대 한국을 주도하는 세대(2): 1990년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30~40대, 1950년~1960년대생



자료: KB부동산, 하나대투증권

일본의 1940년대생과 한국의 1950년대생의 공통점(사회 환경 중심)

일본의 1940년대생과 한국의 1950년생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

첫째, 종전 직후 태어난 세대다.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을 경험했다(종전 기준). 당시 태어난 세대라는 점을 감안 시 유년기를 다른 세대들 보다 힘들게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이분들의 30~40대는 국가 성장의 절정기였다. 1980년~1990년 일본의 연 평균 GDP성장률은 4.7%였다. 이후 일본은 1980년대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적이 없다(그림11).

한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1980년 중반부터 고성장을 시작하긴 했지만, 1990년대의 경우 1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넘긴 이후에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 평균 GDP성장률은 8%로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그림12). 해당세대들이 유년기에 가졌던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성인기(중년기)에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셋째, 저축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다. 1980년~1989년 일본 가계의 저축률은 평균 13.5%(그림13), 1990년~1999년 한국 가계의 평균 저축률은 20.4%로 역사상 고점을 형성했다(그림14).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 부(富)의 축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결되던 시기였다.

넷째, 해당세대들이 자녀를 가져야 하는 시기(30~40대)부터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됐다. 1974년 일본의 1,000명당 출생아수는 18.4명 정도였다. 해당수치는 1990년 10명까지 낮아졌다. 2012년 8.2명이라는 점을 감안 시 1980년~1990년대 저출산이 가파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15). 국내도 1980년 22.6명에서 1999년 13명까지 낮아졌다(그림16). 해당세대들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늘어났다.

(표3에 정리된 내용 참고)

표 3. 일본의 1940년대생과 한국의 1950년대생의 공통점

구분	유년기	성인기/중장년기(30~40대)	30~40대 당시 가계 저축률	30~40대 당시 출산률
일본 1940년대생 (1940년~1950년)	*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형성	* 1980년대 일본 고성장기 * 유년기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 1980년대 일본 가계저축률 13.5% * 높은 성장과 자산수익률 가계자산으로 축적	* 자녀를 가져야 할 시기에 저출산 빠르게 진행 *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 여력이 높아짐
한국 1950년대생 (1950년~1960년)	* 한국전쟁 종전 직후 *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형성	* 1990년대 한국 안정적 고성장기 * 유년기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 1990년대 한국 가계저축률 20.4% * 높은 성장과 자산수익률 가계자산으로 축적	* 자녀를 가져야 할 시기에 저출산 국면 진입 *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 여력이 높아짐

자료: 하나대투증권

그림 11. 일본 1940년대생 종전 이후 출생했기 때문에 유년기는 어려웠지만 30~40대 자산 축적 연령대(1980년대)에 국가 성장을 절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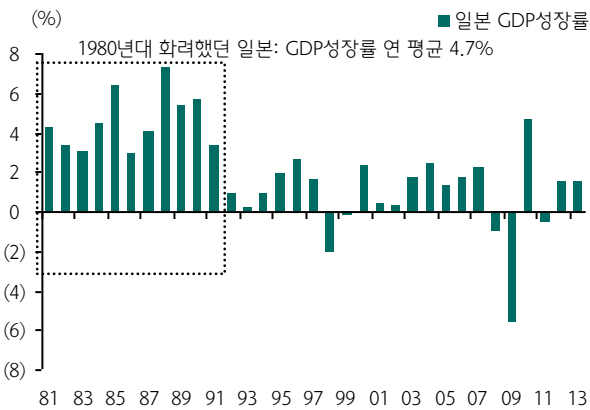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 1950년대생 종전 이후 출생했기 때문에 유년기는 어려웠지만 30~40대 자산 축적 연령대(1990년대)에 국가 성장을 절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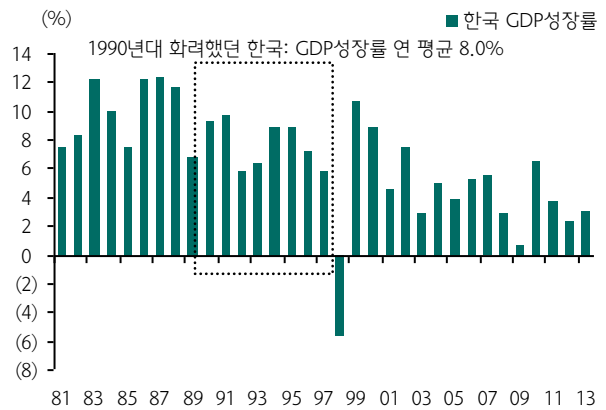


그림 13. 일본의 1980년~1990년 저축률 13.3%: 높은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 부의 축적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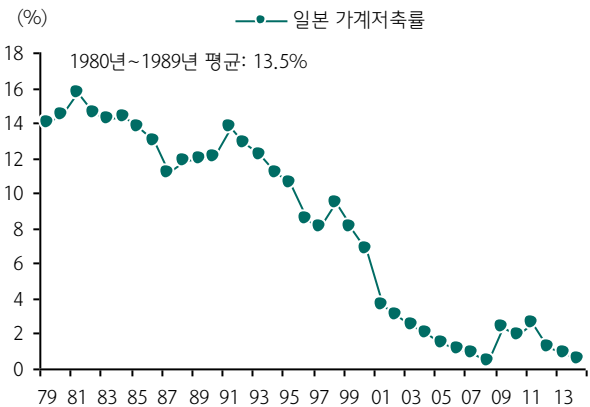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의 1990년~1999년 저축률 20.4%: 높은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 부의 축적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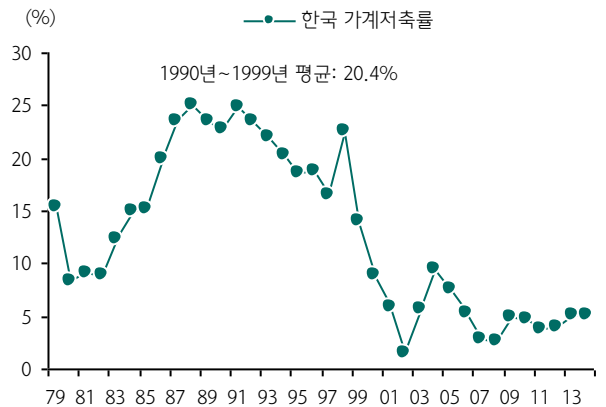


그림 15. 일본 1980년대 자녀를 가져야 할 30~40대의 출산율이 빠르게 저하: 1940년~1950년생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 여력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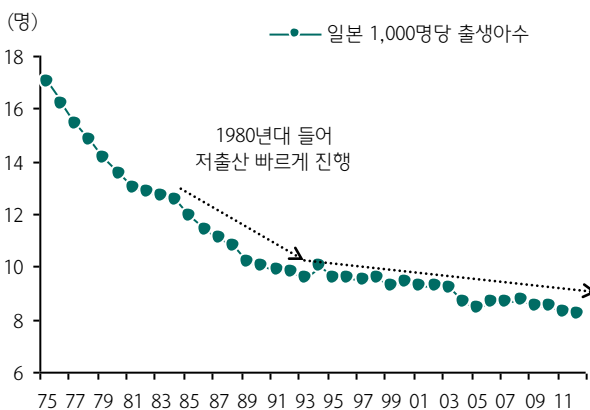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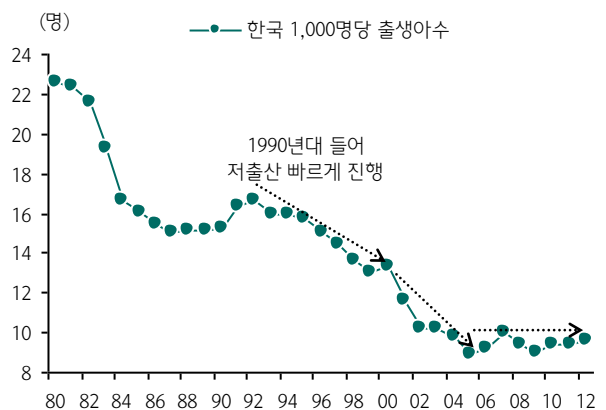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 1990년대 자녀를 가져야 할 30~40대의 출산율이 빠르게 저하: 1950년~1960년생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 여력이 높아짐



2000년대 일본 증시가 주는 시사점

2000년대 일본과 2010년대 한국의 주도섹터는 같다

2000년대 일본의 주력 세대인 1940년대생과 경제적·경험적으로 유사한 1950년대생이 2010년대 한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주가는 경기, 기업 이익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심리, 패턴 등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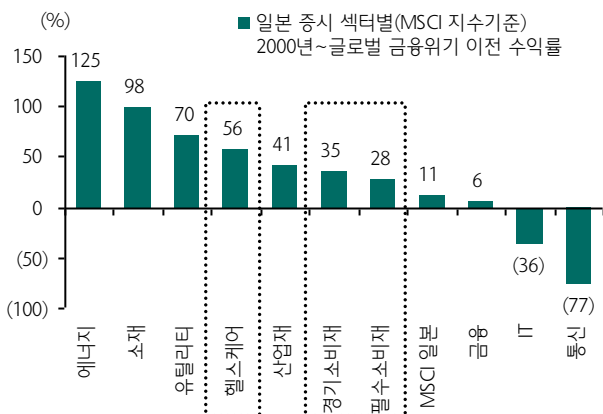
2000년~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일본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했던 섹터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과 같은 중국 관련주였다. 이를 제외하면 헬스케어와 소비재 섹터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1940년~1950년대생이 50~60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축적된 부가 소비로 연결되면서 소비 관련주들이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그림17).

2010년 이후 현재까지를 보면,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일본의 2000년대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Trend)를 반영한 IT섹터를 제외할 경우 30~40대 부를 축적했던 1950년~1960년대생이 50~60대로 진입하면서 소비재(소비 팽창)와 헬스케어(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그림18).

해당세대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소비에 중심에 서 있는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절대적인 노령화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23.3%)에서 2005년(26.5%)까지 3.2%p 증가했고, 한국은 2010년(15.6%)에서 2015년(18.9%)까지 3.3%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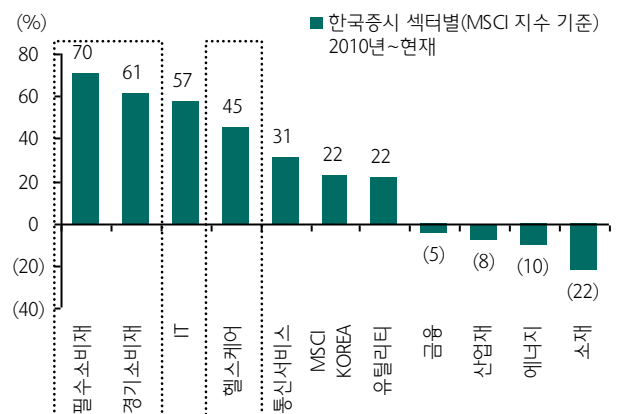
노령인구의 비중 증가 폭을 보면 적어도 올해 내에는 국내 증시에서 경기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17.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일본 증시: 중국 관련주를 제외할 경우 헬스케어와 소비재 섹터가 주도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그림 18. 2010년대 이후 한국 증시: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가 증시를 주도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금번 자료를 통해서는 한국 인구의 노령화와 주식시장의 선진화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2000년대의 일본 증시 흐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8/27일 발간 예정)를 통해서는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일본 증시를 주름잡았던 업종과 기업의 공통점을 가지고 투자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obal Asset Strategy

잭슨홀 연설이 두렵지 않은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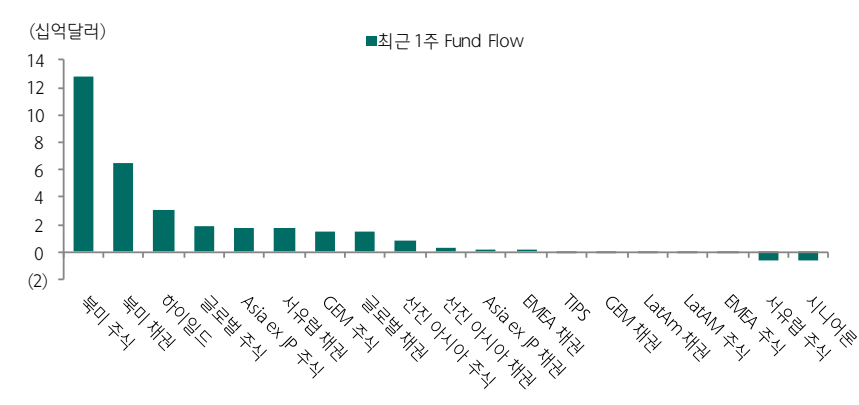
• 잭슨홀 엘런의장 연설 앞두고 북미 주식 및 채권펀드로 대규모 자금유입

지난 주 북미 주식 및 채권 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북미 주식펀드로는 127억 달러, 북미 채권펀드로는 65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이는 각각 2013년 9월, 2014년 2월 이후 최대 규모였다. 잭슨홀 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S&P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 국채 10년 금리는 전일 대비 2bp 하락한 2.41%를 기록했다. 스페인 금리는 2.40%로 미 금리를 하회하는 등 주식, 채권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잭슨홀 연설에서 엘런 의장은 기존의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드라기 총재연설에서는 양적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제공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신흥국 주식펀드는 지난주에 이어 Asia Ex JP와 GEM 펀드를 중심으로 30.9억 달러가 순유입되었다. 신흥국 채권펀드는 3주 연속 유출세가 이어졌다. 하이일드펀드는 저가매수 유입으로 5주만에 순유입 전환되었다.

• ECB 양적완화 기대감 강화, 독일 2년 금리 마이너스 기록

ECB의 양적완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서유럽 채권펀드로 9주 연속 유입세가 유지되고 있다. 로이터 서베이에 따르면 50%의 Money Market Trader들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ECB의 양적완화(QE)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주 33% 대비 높아진 수치이다.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심화로 ECB의 양적완화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독일 2년 국채금리는 2012년 유로존 부채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004%)를 기록했다. 독일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미-독 10년 금리 차는 1999년 이래 최대인 141bp까지 확대되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아진 미 국채 금리 메리트는 수요를 견인해 미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잭슨홀 미팅 앞두고 북미 주식 및 채권으로 대규모 유입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Money Flow



채권 이미선

02-3771-7724

Miseon.lee@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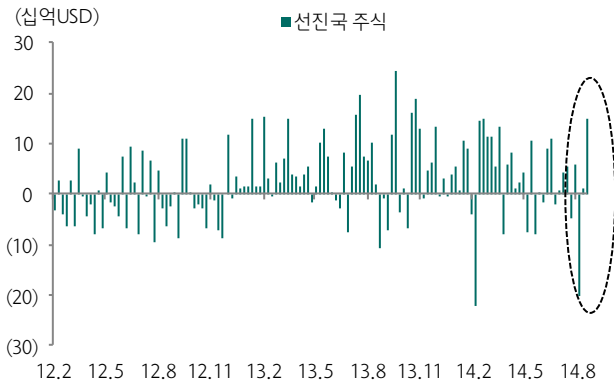
표 1. 펀드 플로우 동향

(단위: 백만USD)

			Weekly Flows (ETF + 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 + non ETF)		Assets
			최근 1주	10주 평균	최근 1주	10주 평균	최근 1주	10주 평균	
주식	선진국	Global	1,857	1,351	1,337	570	0.13	0.10	1,402,938
		NorthAm	12,748	483	7,439	1,878	0.35	0.02	3,763,374
		W.Europe	(619)	(711)	341	164	(0.07)	(0.07)	949,685
		Asia Pacific	854	519	888	426	0.30	0.19	285,443
		선진국 합계	14,839	1,641	10,006	3,038	0.72	0.22	6,401,439
신용국	신용국	GEM	1,516	1,089	906	676	0.31	0.22	498,776
		Asia ex-JP	1,742	1,152	787	752	0.51	0.35	345,837
		EMEA	(88)	(141)	72	(43)	(0.22)	(0.33)	40,493
		LatAm	(84)	(150)	30	(85)	(0.22)	(0.39)	39,399
		신용국 합계	3,087	1,950	1,795	1,301	0.38	(0.15)	924,506
채권	선진국	Global	1,481	989	61	173	0.22	0.15	667,297
		NorthAm	6,537	475	2,856	487	0.36	0.03	1,829,284
		W.Europe	1,704	1,215	341	210	0.32	0.23	541,038
		Asia Pacific	252	45	7	2	0.58	0.10	43,244
		선진국 합계	9,974	2,724	3,265	873	1.48	0.51	3,080,863
신용국	신용국	GEM	(55)	348	149	0	(0.03)	0.17	209,271
		Asia ex-JP	27	(50)	(7)	(32)	0.11	(0.20)	25,039
		EMEA	3	0	(1)	0	0.05	(0.00)	5,965
		LatAm	(83)	(117)	0	0	(0.36)	(0.50)	22,989
		신용국 합계	(107)	181	141	(31)	(0.23)	(0.53)	263,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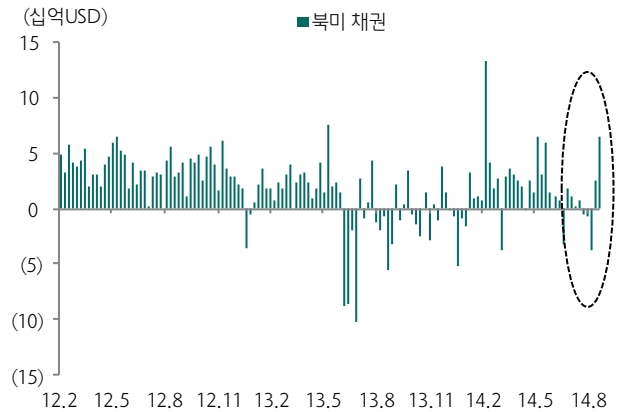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1. 선진국 주식펀드 대규모 자금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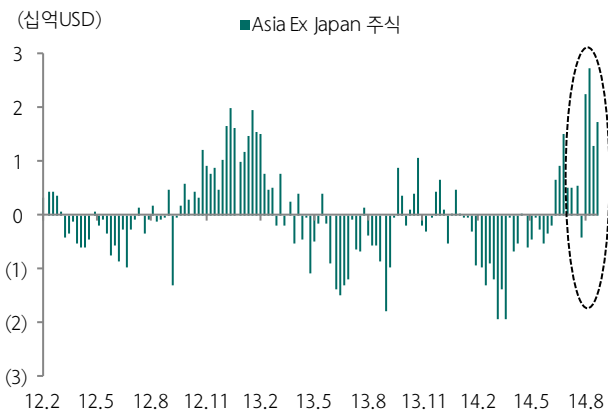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2. 북미 주식펀드 대규모 자금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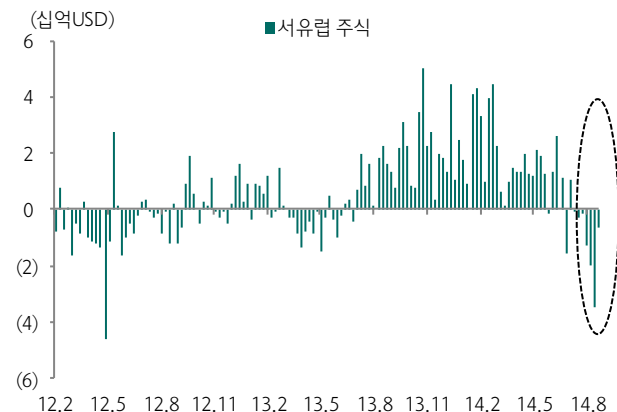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3. Asia Ex Japan 주식펀드 대규모 자금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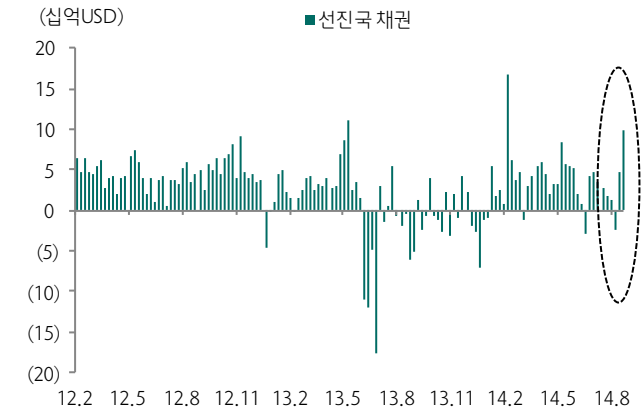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4. 서유럽 주식펀드 유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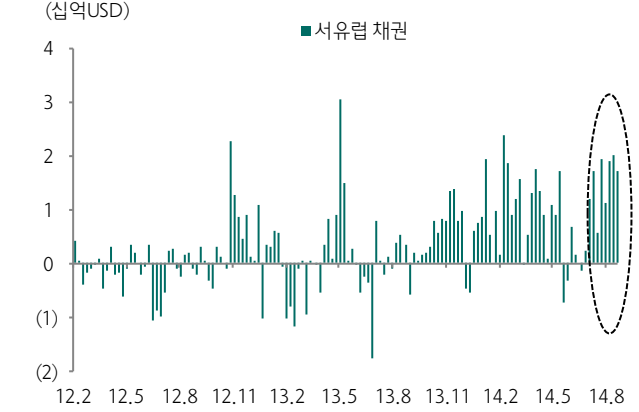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5. 북미채권 중심으로 선진국 채권펀드 대규모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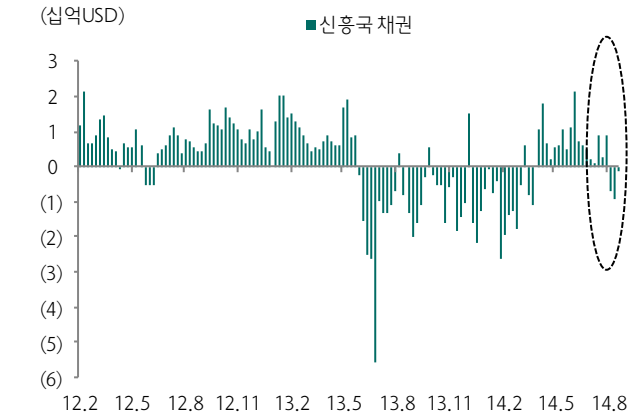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6. ECB 양적완화 가능성 반영 서유럽 채권펀드 유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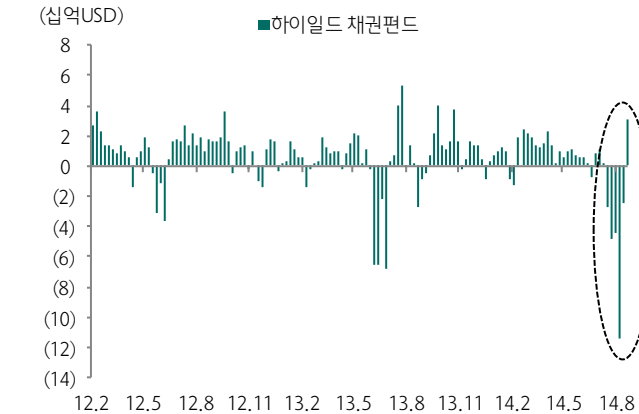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7. 신흥국 채권펀드 3주 연속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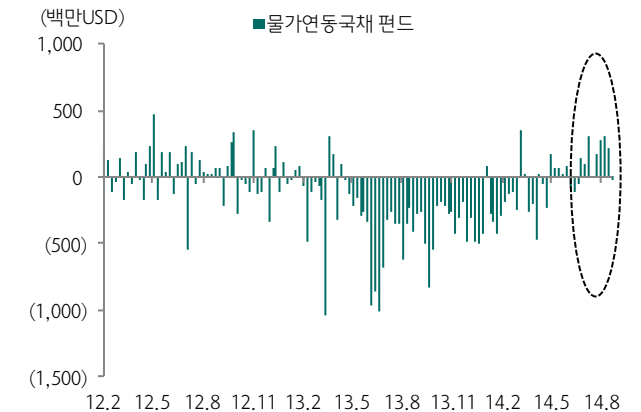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8. 하이일드 채권펀드 순유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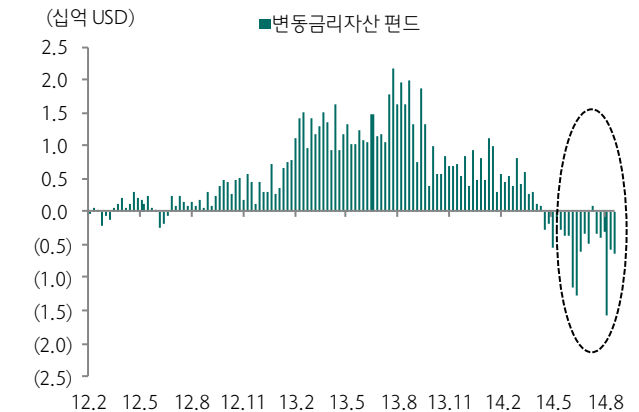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9. 물가연동채권펀드 소폭 유출 전환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그림 10. 시니어론 변동금리채권펀드 유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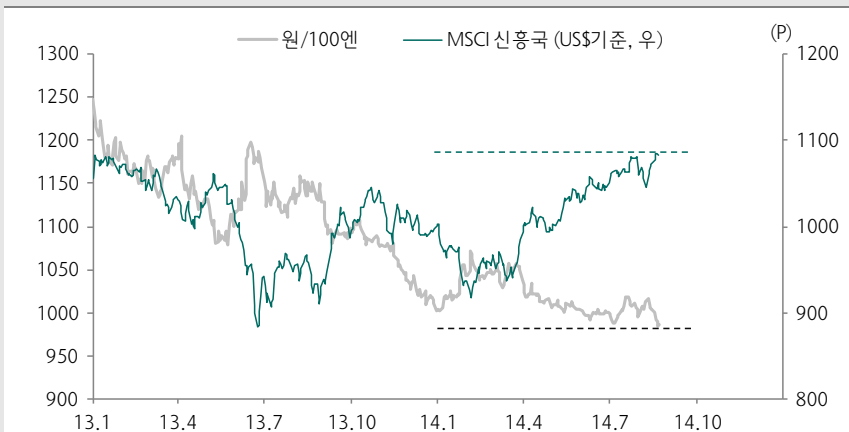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대투증권

Q-Radar

원엔 환율 보다는 신흥국 호조에 주목

- 지난 주 원/100엔 환율은 984원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이 연초의 105엔 선에 못 미친 104엔 수준이었지만 원/100엔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4일째 1000원 선을 하회하고 있다.(그림1).
- 연초에는 엔화가 홀로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105엔을 넘어서면서 원/100엔이 1000원 선이 하회할 뻔 했고, 지난 7월 초반에는 원화 강세 영향으로 엔달러 102엔 수준에서 원/100엔이 1000원을 잠시 하회하기도 했다. 이번 원/100엔 연중 최저치 기록은 달러 강세 영향 속에 엔화와 유로화 같은 주요 통화의 약세와 원화의 견조한 흐름 속에 나타난 결과이다.
- 이는 이전 원/100엔 환율이 저점을 기록한 상황과는 달라진 부분이다. 미국 경기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속에 엔화만의 약세가 아닌 주요국 통화 약세 흐름(그림3) 속에 나타났다는 점과 신흥국 전반적인 호조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신흥국 증시는 지난 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증시 외국인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다(그림4).
- 지난 주 각국 대표 주가지수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 증시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신흥국 경기와 관련 깊은 호주, 홍콩, 그리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같은 신흥국의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100엔 환율 연중 최저치에도 KOSPI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원인이다.
- 신흥국 경기지표가 엇갈리고 있는 점과 최근 한국증시는 낮은 변동성 또는 배당주 같은 안정적인 종목들의 호조가 돋보였다(그림6)는 점은 신흥국 증시호조가 아직은 기대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신흥국 증시 호조세는 한국증시에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직은 기대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신흥국 증시가 2011년 8월 초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원/100엔 환율은 연중 최저치, 신흥국 증시 주가지수는 연중 최고치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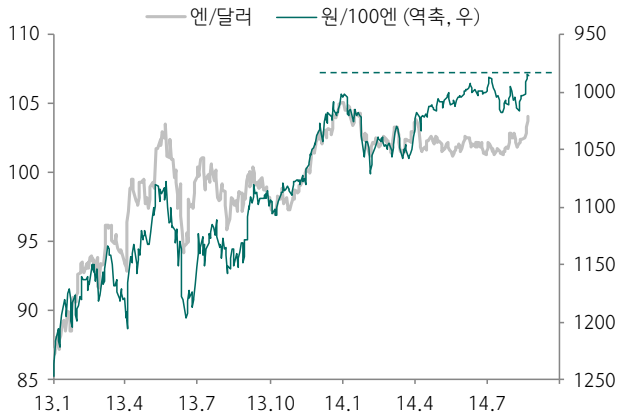
Quant



퀀트 장희종
02-3771-7786
chang.heejong@hanafn.com

퀀트RA 한대훈
02-3771-7518
handaehoon@hanafn.com

그림 1. 원/100엔 연중 최고치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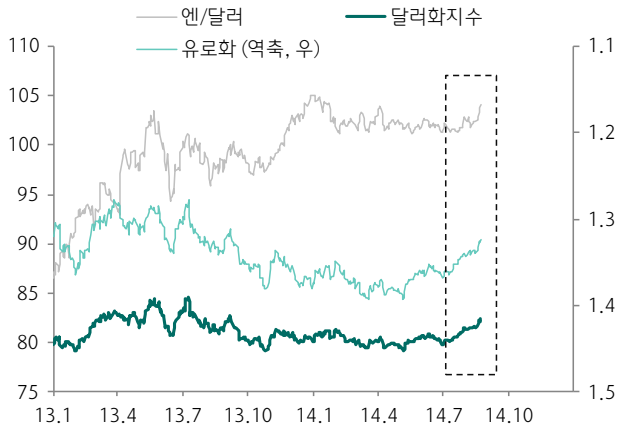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그림 2. 엔화 약세로 일본증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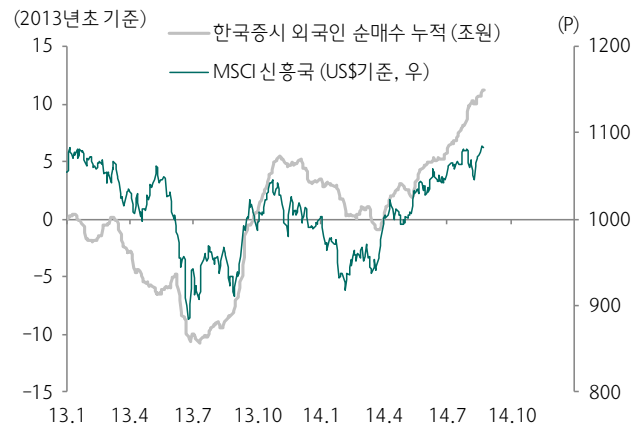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그림 3. 이번 엔화 약세는 엔화 홀로 약세가 아니라 달러화 강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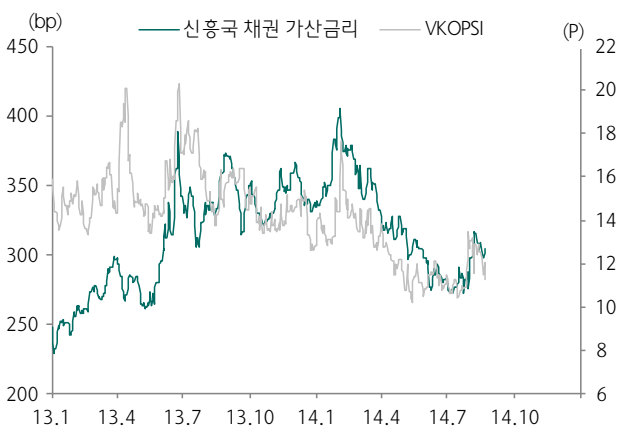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그림 4. 신흥국 증시도 연중 최고치 경신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그림 5. 위험대용지표들은 최근 등락 속에 하향 흐름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그림 6. 최근 한국증시는 낮은 변동성과 배당주 같은 안정적 종목 호조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1) 업종별 Valuation과 Earnings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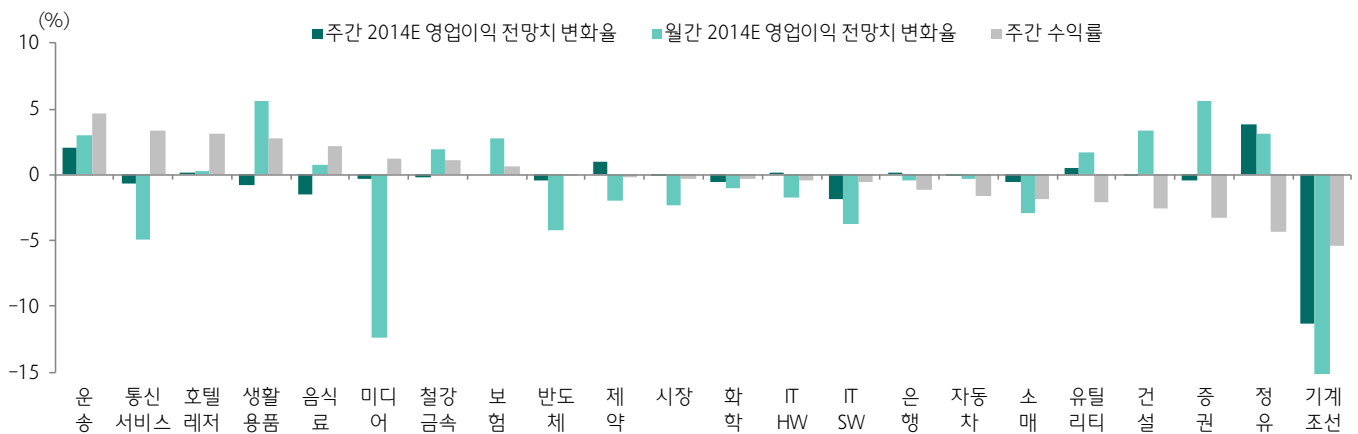
표 2. 업종별 P/E, P/B, 순이익증가율, ROE

업종	P/E (x)			P/B (x)			순이익증가율 (%)		ROE (%)	
	2014F	2015F	12MF	2014F	2015F	12MF	2014F	2015F	2014F	2015F
시장	12.49	10.59	11.16	1.13	1.03	1.06	8.3	16.8	9.43	10.15
정유	13.47	8.64	9.81	0.63	0.59	0.60	-32.9	56.0	4.81	7.04
화학	16.51	11.78	13.05	1.11	1.03	1.05	32.6	38.8	6.78	9.04
철강금속	14.62	11.95	12.74	0.78	0.75	0.76	19.7	19.8	5.40	6.37
건설	16.75	12.62	13.81	1.02	0.95	0.97	흑전	30.9	6.21	7.71
기계조선	56.57	13.01	17.58	0.80	0.75	0.76	-77.1	494.2	1.10	5.77
운송	62.05	28.87	35.13	2.00	1.86	1.90	흑전	114.9	3.17	6.45
자동차	7.68	7.11	7.29	1.12	0.98	1.02	2.2	7.5	15.71	14.69
호텔레저	24.97	20.28	21.61	3.76	3.35	3.47	22.5	21.7	15.88	13.57
미디어	19.45	15.41	16.55	2.06	1.83	1.90	19.4	26.2	11.02	17.47
소매	13.64	12.01	12.50	0.93	0.87	0.89	-1.8	12.9	7.07	12.57
음식료	20.09	16.45	17.50	1.75	1.59	1.64	24.6	18.7	8.87	7.48
생활용품	32.14	26.87	28.46	4.46	3.85	4.03	25.9	19.2	14.32	10.60
제약	21.48	16.52	18.30	2.24	1.98	2.06	47.6	23.3	11.70	12.90
은행	9.58	9.35	9.42	0.65	0.61	0.62	25.5	2.5	6.98	6.74
증권	18.64	14.92	15.98	0.87	0.82	0.84	60.9	25.0	4.78	5.53
보험	13.79	13.05	13.28	1.12	1.04	1.07	15.3	5.7	8.56	8.28
ITSW	29.85	22.61	24.82	5.00	4.21	4.47	31.2	34.8	17.70	20.36
ITHW	17.09	11.49	12.92	1.16	1.06	1.09	4.6	45.2	6.98	9.32
반도체	8.17	7.97	8.03	1.31	1.14	1.20	-10.6	2.4	17.34	15.34
통신서비스	27.82	11.65	14.45	1.19	1.11	1.13	-26.1	138.8	4.29	9.85
유틸리티	11.79	9.70	10.32	0.60	0.57	0.58	흑전	19.8	5.22	6.04

주: 추정치는 consensus 기준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그림 7. 업종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와 최근 주가 수익률: 지난 한주간 운송, 통신서비스 호텔레저 업종 순으로 강세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표 3. 업종별 주요기업의 Valuation과 Earnings 모멘텀

섹터	업종	종목 번호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P/E (x)			P/B (x)			순이익증가율 (%)		ROE (%)	
					2014F	2015F	12MF	2014F	2015F	12MF	2014F	2015F	2014F	2015F
에너지	정유	A096770	SK이노베이션	8,830	20.0	9.7	11.7	0.6	0.5	0.5	(38.6)	105.7	2.8	5.7
		A003600	SK	7,772	7.7	6.3	6.7	0.5	0.4	0.4	259.4	23.8	8.1	8.7
		A010950	S-Oil	5,252	23.9	12.8	15.1	1.0	1.0	1.0	(21.3)	86.8	4.2	7.7
소재	화학	A051910	LG화학	18,225	17.3	13.1	14.3	1.6	1.5	1.5	(7.4)	32.2	9.8	11.9
		A011170	롯데케미칼	5,587	18.4	11.5	13.1	0.8	0.8	0.8	5.6	60.4	4.8	7.2
		A010060	OCI	3,565	58.9	20.2	25.9	1.2	1.2	1.2	흑전	191.5	2.1	5.9
	철강금속	A005490	POSCO	29,731	16.8	12.3	13.5	0.6	0.6	0.6	28.3	36.5	4.2	5.5
		A004020	현대제철	8,974	11.1	10.1	10.4	0.6	0.6	0.6	(14.1)	9.1	6.0	6.1
		A010130	고려아연	8,227	16.4	14.3	14.9	1.7	1.5	1.6	12.1	14.7	11.4	11.9
산업재	건설	A000830	삼성물산	11,498	22.8	19.7	20.6	1.0	0.9	1.0	114.4	15.6	4.7	5.2
		A000720	현대건설	6,782	11.7	9.5	10.2	1.2	1.1	1.1	14.9	22.9	11.1	12.1
		A000210	대림산업	2,958	11.6	8.6	9.5	0.7	0.6	0.6	흑전	34.6	5.8	7.3
	기계조선	A009540	현대중공업	10,298	(17.3)	22.0	91.2	0.5	0.5	0.5	적전	흑전	(3.5)	2.8
		A010140	삼성중공업	6,095	28.2	11.0	13.8	1.0	0.9	0.9	(65.8)	156.4	3.7	8.9
		A042660	대우조선해양	4,392	15.3	9.9	11.2	0.8	0.8	0.8	6.9	54.7	5.7	8.3
		A034020	두산중공업	2,951	24.8	11.9	14.4	0.6	0.5	0.6	71.4	108.6	2.5	5.0
		A042670	두산인프라코어	2,417	17.6	12.7	14.0	0.8	0.8	0.8	흑전	38.7	4.6	6.1
	운송	A086280	현대글로벌비스	11,963	20.1	20.1	20.1	4.2	3.5	3.7	23.6	(0.2)	22.9	19.0
		A000120	CJ대한통운	3,730	56.5	31.0	36.5	1.3	1.2	1.2	흑전	82.4	2.9	5.2
		A003490	대한항공	2,124	16.6	25.3	21.5	0.8	0.8	0.8	흑전	(34.3)	4.8	3.0
경기 소비재	자동차	A005380	현대차	49,452	7.7	7.2	7.4	1.0	0.9	0.9	(2.1)	6.2	15.0	13.9
		A012330	현대모비스	27,840	7.6	7.0	7.2	1.2	1.0	1.1	6.8	8.1	16.8	15.6
		A000270	기아차	24,038	6.6	6.2	6.3	1.0	0.9	0.9	(4.3)	6.1	16.7	15.3
	호텔레저	A035250	강원랜드	7,434	18.5	16.9	17.4	2.6	2.4	2.4	34.8	9.4	15.2	15.3
		A008770	호텔신라	5,024	53.6	29.0	34.2	6.6	5.4	5.8	785.2	84.8	13.3	20.9
		A034230	파라다이스	3,483	27.0	23.9	24.9	3.9	3.4	3.6	27.5	12.8	16.4	16.1
	미디어	A030000	제일기획	2,399	20.1	17.9	18.6	2.9	2.4	2.6	21.0	12.1	17.4	17.4
		A037560	CJ헬로비전	1,138	14.9	12.0	12.8	1.2	1.1	1.1	(0.9)	24.5	8.3	9.5
		A053210	스카이라이프	1,081	13.3	11.2	11.8	2.4	2.0	2.1	11.2	19.0	18.9	19.5
	소매	A023530	롯데쇼핑	10,282	12.9	11.2	11.7	0.6	0.5	0.6	1.0	15.3	4.8	5.3
		A139480	이마트	6,453	13.9	12.3	12.8	0.9	0.9	0.9	(0.4)	12.3	6.9	7.2
		A069960	현대백화점	3,639	12.3	11.1	11.5	1.1	1.0	1.0	(1.0)	11.1	9.4	9.5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음식료	A001800	오리온	5,234	32.3	27.9	29.3	3.7	3.2	3.3	11.0	15.8	13.6	13.8
		A097950	CJ제일제당	4,879	24.0	15.4	17.5	1.7	1.6	1.6	91.3	55.9	7.5	10.8
		A004370	농심	1,502	16.1	14.6	15.1	0.9	0.9	0.9	5.7	10.0	6.2	6.6
	생활용품	A051900	LG생활건강	7,997	25.2	22.1	23.1	5.1	4.3	4.5	0.6	14.1	23.2	22.1
		A090430	아모레퍼시픽	12,674	40.4	33.3	35.4	5.2	4.6	4.8	38.2	21.4	13.7	14.7
		A161890	한국콜마	1,023	43.4	30.1	33.5	7.2	5.8	6.2	67.5	44.5	18.5	21.5
	제약	A170900	녹십자	1,379	16.0	17.6	17.0	1.5	1.4	1.5	19.1	(8.6)	10.0	8.5
		A006280	한미약품	795	18.3	15.8	16.4	1.6	1.5	1.5	(16.0)	16.2	9.6	9.9
		A128940	동아에스티	770	21.3	17.7	18.8	1.6	1.5	1.5	흑전	20.3	7.9	8.8
금융	은행	A055550	신한지주	24,564	11.8	11.0	11.3	0.9	0.8	0.8	11.7	7.4	7.5	7.5
		A105560	KB금융	15,454	10.4	9.3	9.6	0.6	0.6	0.6	18.4	11.3	5.7	6.0
		A086790	하나금융지주	12,248	11.0	9.4	9.9	0.5	0.5	0.5	14.6	16.2	5.2	5.6
	증권	A053000	우리금융	9,130	6.2	8.7	8.0	0.5	0.5	0.5	흑전	(28.6)	8.9	5.9
		A016360	삼성증권	3,577	17.6	20.1	19.2	1.0	1.0	1.0	1748.6	(12.4)	6.1	5.1
		A006800	대우증권	3,545	23.7	21.6	22.2	0.9	0.9	0.9	흑전	9.6	3.9	4.1
		A071050	한국금융지주	2,636	16.4	14.6	15.1	1.0	0.9	0.9	202.1	12.7	6.5	6.9
	보험	A032830	삼성생명	21,500	16.8	19.9	18.7	1.0	0.9	1.0	118.5	(15.7)	6.5	5.1
		A000810	삼성화재	13,454	16.4	14.5	15.1	1.4	1.3	1.3	71.3	13.1	10.3	10.3
		A088350	한화생명	6,054	12.9	11.9	12.2	0.8	0.7	0.8	32.0	8.7	6.5	6.6
		A005830	동부화재	4,467	10.7	9.4	9.8	1.3	1.1	1.2	49.3	14.3	14.2	14.2
IT	ITSW	A035420	NAVER	25,513	50.4	32.3	36.7	11.1	8.1	8.9	102.8	86.8	28.5	32.1
		A036570	엔씨소프트	3,136	14.2	12.6	13.1	2.1	1.8	1.9	38.7	13.0	17.7	17.0
		A181710	NHN엔터	1,115	31.3	18.9	21.8	1.1	1.0	1.0	(26.7)	76.5	3.5	5.5
	ITHW	A066570	LG전자	12,192	14.0	10.5	11.4	1.1	1.0	1.0	444.2	33.7	7.9	9.7
		A034220	LG디스플레이	12,166	15.9	12.4	13.4	1.1	1.0	1.0	79.8	28.2	7.0	8.3
		A006400	삼성SDI	10,177	31.9	22.9	22.1	1.2	1.1	1.2	67.6	39.3	3.4	5.2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	A005930	삼성전자	183,682	8.1	8.1	8.1	1.1	1.0	1.0	(12.4)	0.6	16.8	14.7
		A000660	SK하이닉스	33,194	9.4	8.6	8.8	2.0	1.6	1.7	19.6	9.6	23.7	20.9
		A017670	SK텔레콤	21,882	12.7	11.1	11.6	1.4	1.2	1.3	5.3	14.1	12.5	13.2
유틸리티	유틸리티	A030200	KT	8,826	(12.5)	12.9	39.9	0.8	0.7	0.7	적지	흑전	(6.2)	6.1
		A032640	LG유플러스	4,388	18.3	11.6	13.2	1.1	1.0	1.0	(14.1)	57.1	5.9	8.7
		A015760	한국전력	26,962	10.8	8.8	9.4	0.5	0.5	0.5	4087.1	22.9	4.9	5.7
유틸리티	유틸리티	A036460	한국가스공사	5,170	11.4	9.6	10.1	0.5	0.5	0.5	흑전	19.3	4.9	5.6

주: 순이익과 ROE는 당기순이익(지배)기준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3) 지역별 52주 신고가/신저가 종목리스트

표 4. 북미 52주 신고가/신저가 종목리스트

애플은 iPhone 6의 긍정적인 판매
전망으로 신고가 경신

인텔과 유니티 테크놀로지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공동 연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고가 기록

스프린트는 공격적인 가격 프로모션
정책을 발표로 신저가 기록

52주 신고가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종가 (Local)	52주 최고 (Local)	신고가 기록일
애플	AAPL US	미국	IT	기술 하드웨어	606.7	101.3	101.5	8/22
버크셔 해서웨이	BRK/B US	미국	금융	다각화금융	334.3	135.8	136.8	8/21
인텔	INTC US	미국	IT	반도체&장비	173.0	34.9	35.2	8/22
길리어드 사이언스	GILD US	미국	헬스케어	바이오	157.2	104.0	105.2	8/22
월트 디즈니	DIS US	미국	경기소비재	미디어	155.3	90.5	90.9	8/22
펍시코	PEP US	미국	필수소비재	음식료	138.0	91.6	93.2	8/21
홈데포	HD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124.5	91.0	91.8	8/21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RY CN	캐나다	금융	은행	106.4	80.8	82.3	8/22
암젠	AMGN US	미국	헬스케어	바이오	100.9	132.8	134.0	8/18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TD CN	캐나다	금융	은행	97.0	57.7	58.2	8/22
52주 신저가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종가 (Local)	52주 최저 (Local)	신저가 기록일
스프린트	S US	미국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21.9	5.5	5.4	8/19
마텔	MAT US	미국	경기소비재	내구소비재	11.8	35.0	34.7	8/20
크리	CREE US	미국	IT	반도체&장비	5.5	45.2	43.7	8/18

주: 8/18(월)~8/22(금) 기간 동안 시총 상위 종목 중심, 종가는 8/22 기준. 52주 신고가/신저가는 장중가액 포함.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표 5. 유럽 52주 신고가/신저가 종목리스트

사노피-아벤티스사의 유전질환 치료
제 'Cerdelga'가 FDA의 허가 소식에
최고치 경신

새 온라인 투자플랫폼과 비과세 개인
자산관리종합계좌 개발을 발표한 푸
르덴셀 주가 최고치 기록

러시아 시장에서 약 35%의 연간 이
익을 거두었던 칼스버그는 지정학적
마찰 속에 하락세 지속

52주 신고가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종가 (Local)	52주 최고 (Local)	신고가 기록일
사노피-아벤티스	SAN FP	프랑스	헬스케어	제약	139.0	79.4	80.8	8/21
푸르덴셀	PRU LN	영국	금융	보험	61.6	1448.5	1451.5	8/22
테바제약	TEVA IT	이스라엘	헬스케어	제약	46.0	19070.0	19070.0	8/21
헤이네켄	HEIA NA	네덜란드	필수소비재	음식료	43.2	56.7	57.8	8/21
리드 엘스비어	REL LN	영국	경기소비재	미디어	36.3	982.0	989.0	8/22
UCB	UCB BB	벨기에	헬스케어	제약	18.9	73.3	73.7	8/22
넥스트	NXT LN	영국	경기소비재	소매	17.9	7055.0	7070.0	8/22
Hexagon AB	HEXAB SS	스웨덴	IT	전자장비	11.8	230.0	233.0	8/19
소노바 홀딩	SOON VX	스위스	헬스케어	헬스케어 장비	10.7	145.8	146.8	8/21
멧초	MEO1V FH	핀란드	산업재	기계조선	6.2	31.3	32.0	8/19
52주 신저가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종가 (Local)	52주 최저 (Local)	신저가 기록일
칼스버그	CARLB DC	덴마크	필수소비재	음식료	14.0	511.5	502.5	8/20

주: 8/18(월)~8/22(금) 기간 동안 시총 상위 종목 중심, 종가는 8/22 기준. 52주 신고가/신저가는 장중가액 포함.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표 6. 한국 52주 신고가/신저가 종목리스트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원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는 POSCO 신고가 경신

신한지주는 안정적 이익창출 메리트 부각 속에 외국인 매수세 지속

수주 부진 우려에 신용등급 전망 하향 약재 겹친 조선업체 주가는 신저가

정유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높은 우려 속에 정유주 신저가 기록

52주 신고가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종가 (Local)	52 주 최고 (Local)	신고가 기록일
POSCO	005490 KS	한국	소재	철강금속	29.2	341,000	348,000	8/21
신한지주	055550 KS	한국	금융	은행	24.1	51,800	52,900	8/20
SK 텔레콤	017670 KS	한국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21.5	271,000	276,500	8/20
삼성생명	032830 KS	한국	금융	보험	21.1	107,500	109,000	8/21
아모레퍼시픽	090430 KS	한국	필수소비재	생활용품	12.4	2,168,000	2,245,000	8/22
LG 디스플레이	034220 KS	한국	IT	전자장비	11.9	34,000	35,450	8/22
LG	003550 KS	한국	산업재	지주	11.8	70,000	71,700	8/21
현대글로비스	086280 KS	한국	산업재	항공운송	11.7	319,000	328,000	8/20
SK C&C	034730 KS	한국	IT	IT 서비스	10.7	218,000	226,000	8/20
아모레 G	002790 KS	한국	필수소비재	생활용품	8.1	1,038,000	1,072,000	8/22
52주 신저가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종가 (Local)	52 주 최저 (Local)	신저가 기록일
삼성전자	005930 KS	한국	IT	반도체&장비	180.1	1,247,000	1,231,000	8/21
현대중공업	009540 KS	한국	산업재	기계조선	10.1	135,500	134,500	8/21
SK 이노베이션	096770 KS	한국	에너지	정유	8.7	95,500	90,100	8/21
한국타이어	161390 KS	한국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6.4	53,000	52,500	8/22
S-Oil	010950 KS	한국	에너지	정유	5.1	46,650	45,300	8/21
대우조선해양	042660 KS	한국	산업재	기계조선	4.3	22,950	22,650	8/21
삼성전기	009150 KS	한국	IT	전자장비	4.1	55,800	55,700	8/22
OCI	010060 KS	한국	소재	화학	3.5	149,500	148,000	8/18
엔씨소프트	036570 KS	한국	IT	소프트웨어	3.1	143,000	140,500	8/22
두산중공업	034020 KS	한국	산업재	전기장비	2.9	27,800	27,150	8/21

주: 8/18(월)~8/22(금) 기간 동안 시총 상위 종목 중심, 종가는 8/22 기준. 52주 신고가/신저가는 장종가격 포함.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표 7. 이머징 52주 신고가/신저가 종목리스트

대선 후보의 비행기 사고 이후 같은 당의 마리아 시우바 새 후보가 출마 하면서 브라질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속에 대표적 국영 기업들 주가 상승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 업체인 Felda Global Ventures는 팜오일 가격 하락세 지속되면서 신저가 기록

52주 신고가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종가 (Local)	52 주 최고 (Local)	신고가 기록일
페트로브라스	PETR3 BZ	브라질	에너지	정유	115.7	19.7	20.4	8/21
아메리카 모빌	AMXL MM	멕시코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82.8	15.7	15.9	8/21
방쿠 브라데스쿠	BBDC3 BZ	브라질	금융	은행	69.9	38.2	38.9	8/21
MTN 그룹	MTN SJ	남아공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42.7	24697.0	24980.0	8/22
방쿠 두 브라질	BBAS3 BZ	브라질	금융	은행	38.0	30.2	30.6	8/21
Qatar National Bank SAQ	QNBK QD	카타르	금융	은행	37.4	194.5	200.0	8/19
MMC 노릴스크 니켈	GMKN RM	러시아	소재	철강금속	32.0	7300.0	7535.0	8/21
선 파마수티컬 인더스트리스	SUNP IN	인도	헬스케어	제약	29.4	856.7	867.5	8/21
타타 모터스	TTMT IN	인도	경기소비재	자동차	25.7	511.6	522.0	8/20
힌두스탄 유니레버	HUVR IN	인도	필수소비재	생활용품	25.2	704.2	736.8	8/18
52주 신저가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종가 (Local)	52 주 최저 (Local)	신저가 기록일
청신 러버 인더스트리	2105 TT	대만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7.4	68.6	66.5	8/18
임팔라 플레티넘 홀딩스	IMP SJ	남아공	소재	철강금속	5.9	10041.0	9983.0	8/22
Felda Global Ventures	FGV MK	말레이시아	필수소비재	음식료	4.5	3.9	3.9	8/19
UEM 랜드 홀딩스	UEMS MK	말레이시아	금융	부동산	2.8	2.0	2.0	8/22
IOI Properties Group Bhd	IOIPG MK	말레이시아	금융	부동산	2.5	2.4	2.4	8/20
Taiwan Glass Industry	1802 TT	대만	산업재	건축재료	2.0	25.5	24.5	8/19
타이완 퍼틸라이저	1722 TT	대만	소재	화학	1.9	57.1	56.2	8/21
Standard Foods	1227 TT	대만	필수소비재	음식료	1.8	75.9	73.0	8/18
China Airlines	2610 TT	대만	산업재	항공운송	1.8	10.2	9.8	8/18
ScinoPharm Taiwan	1789 TT	대만	헬스케어	제약	1.4	61.3	52.4	8/18

주: 8/18(월)~8/22(금) 기간 동안 시총 상위 종목 중심, 종가는 8/22 기준. 52주 신고가/신저가는 장종가격 포함.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4) 지역별 주간 상위/하위수익률 종목리스트

표 8. 북미 주간 상위·하위수익률 종목리스트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주간수익률 (%)	월간수익률 (%)	연초대비 (%)
큐리그 그린 마운틴은 맥스웰과 크래프트푸드 등 커피 브랜드의 캡슐커피 공급 소식에 주가 급등	큐리그 그린 마운틴	GMCR US	미국	필수소비재	음식료	18.7	15.97	10.18
	로스 스토어스	ROST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13.9	13.46	18.05
	TJX 컴퍼니	TJX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37.2	11.70	11.79
	세일즈포스닷컴	CRM US	미국	IT	소프트웨어	32.9	11.50	11.57
	달러 제너럴	DG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17.4	10.82	14.08
미국 소매판매 지수가 부진 속에 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 록한 로스 스토어스, TJX 컴퍼니 주가 급등	홈데포	HD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114.5	8.77	12.35
	랙스페이스 호스팅	RAX US	미국	IT	인터넷	4.5	8.68	7.79
	갭	GPS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18.5	8.40	13.75
	메이시스	M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20.7	7.52	7.46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LUV US	미국	산업재	항공운송	20.4	7.09	10.39
코카콜라가 인수를 선언한 몬스 터 베버리지는 차익 실현 매물에 주가 하락	몬스터 베버리지	MNST US	미국	필수소비재	음식료	15.6	(7.62)	32.02
	시어스 홀딩스	SHLD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3.7	(5.89)	(14.03)
	애그니코 이글 마인스	AEM CN	캐나다	소재	철강금속	8.3	(4.89)	(7.60)
	골드코프	G CN	캐나다	소재	철강금속	23.2	(4.21)	1.36
	프랑코-네바다	FRV CN	캐나다	소재	철강금속	8.6	(3.53)	0.48
올해 80개 매장을 추가 폐쇄한 시어스 홀딩스는 주가 하락세 지 속	네이보스 인더스트리	NBR US	미국	에너지	에너지 장비/서비스	7.8	(3.14)	(13.72)
	아마나 골드	YRI CN	캐나다	소재	철강금속	7.6	(3.07)	4.32
	허벌라이프	HLF US	미국	필수소비재	생활용품	4.7	(2.92)	(24.44)
	스프린트	S US	미국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22.4	(2.64)	(27.86)
	달러 트리	DLTR US	미국	경기소비재	소매	11.5	(2.41)	(0.36)

주: 주간수익률은 8/18~8/22 기준, 월간수익률은 7/23~8/22 기준, 연초대비 수익률은 12/31 이후 성과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표 9. 유럽 주간 상위·하위수익률 종목리스트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주간수익률 (%)	월간수익률 (%)	연초대비 (%)
세계 3위 맥주업체 하이네켄은 상반기 세전이익이 전망치를 상 회하며 주가 상승	올리우스 베어 그룹	BAER VX	스위스	금융	증권	9.9	9.00	8.50
	헤이네켄	HEIA NA	네덜란드	필수소비재	음식료	40.3	8.38	3.62
	아스트라제네카	AZN LN	영국	헬스케어	제약	86.2	7.95	(0.07)
	그리폴스	GRF SM	스페인	헬스케어	바이오	13.9	7.76	(9.21)
	노키아	NOK1V FH	핀란드	IT	하드웨어	29.1	7.33	8.74
미 임상실험 결과에 문제가 제기 됐던 아스트라제네카카의 심혈관 질환 치료제가 이상 없음이 밝혀 지면서 주가 호조	테바제약	TEVA IT	이스라엘	헬스케어	제약	43.6	7.13	1.87
	메디오방카	MB IM	이탈리아	금융	증권	7.1	6.48	(4.01)
	콘티넨탈	CON CR	독일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41.3	5.94	(2.49)
	르노	RNO FP	프랑스	경기소비재	자동차	22.8	5.89	(12.89)
	텔레노르	TEL NO	노르웨이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35.8	5.54	5.54
인도정부와의 세금 분쟁으로 인 해 공급 계약 불확실해진 케언에 너지 주가 하락	킹피셔	KGF LN	영국	경기소비재	소매	12.2	(10.31)	(15.27)
	테크니프	TEC FP	프랑스	에너지	에너지 장비/서비스	10.5	(9.00)	(13.75)
	케언 에너지	CNE LN	영국	에너지	정유	1.7	(5.99)	(11.48)
	페트로파	PFC LN	영국	에너지	에너지 장비/서비스	6.6	(5.45)	(7.85)
	크리스찬 디올	CDI FP	프랑스	경기소비재	섬유·의류·영품	33.3	(5.20)	(6.66)
	BHP 빌리턴	BLT LN	영국	소재	철강금속	189.0	(5.17)	(5.93)
	테스코	TSCO LN	영국	필수소비재	생필품소매	37.3	(5.14)	(5.21)
	케링	KER FP	프랑스	경기소비재	섬유·의류·영품	25.7	(4.36)	(4.72)
	칼스버그	CARLB DC	덴마크	필수소비재	음식료	14.8	(4.03)	(10.73)
	포스트 NL	PNL NA	네덜란드	산업재	항공운송	2.3	(3.79)	13.21
								(6.48)

주: 주간수익률은 8/18~8/22 기준, 월간수익률은 7/23~8/22 기준, 연초대비 수익률은 12/31 이후 성과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표 10. 한국 주간 상위·하위수익률 종목리스트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주간수익률 (%)	월간수익률 (%)	연초대비 (%)
내수 비중이 높은 자회사들로 이루어진 CJ그룹 지주회사 CJ의 호조세 지속	CJ	001040 KS	한국	산업재	지주	4.7	13.15	26.71	58.80
	현대위아	011210 KS	한국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5.1	12.56	23.18	20.26
	KCC	002380 KS	한국	산업재	건축재료	6.6	10.02	8.49	50.05
	롯데제과	004990 KS	한국	필수소비재	음식료	2.9	8.88	7.30	19.87
	SK C&C	034730 KS	한국	IT	IT 서비스	9.9	8.19	25.29	61.48
현대위아는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항공과 현대위스코 흡수합병 소식에 주가 상승	대한항공	003490 KS	한국	산업재	항공운송	1.9	8.06	3.87	16.03
	한라비스테온공조	018880 KS	한국	경기소비재	자동차부품	5.3	5.94	2.49	38.06
	현대글로벌비스	086280 KS	한국	산업재	항공운송	11.1	5.80	22.93	38.10
	SK 아이닉스	000660 KS	한국	IT	반도체&장비	30.9	5.51	(7.08)	24.86
	아모레퍼시픽	090430 KS	한국	필수소비재	생활용품	11.8	5.40	30.05	116.80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주간수익률 (%)	월간수익률 (%)	연초대비 (%)
라면 시장점유율 하락과 해외 사업 확장으로 인해 수익성 향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심 주가 하락	S-Oil	010950 KS	한국	에너지	정유	5.9	(12.15)	(13.45)	(36.96)
	대우조선해양	042660 KS	한국	산업재	기계조선	4.7	(9.11)	(12.74)	(34.43)
	농심	004370 KS	한국	필수소비재	음식료	1.6	(9.02)	(5.73)	(1.59)
	현대중공업	009540 KS	한국	산업재	기계조선	11.0	(8.45)	(20.29)	(47.28)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KS	한국	산업재	건설	2.6	(8.12)	(14.90)	(7.42)
개선된 2Q 실적 보였지만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엔씨소프트 주가 하락 지속	엔씨소프트	036570 KS	한국	IT	소프트웨어	3.3	(8.04)	(8.04)	(42.45)
	현대미포조선	010620 KS	한국	산업재	기계조선	2.3	(7.59)	(19.78)	(38.48)
	우리투자증권	005940 KS	한국	금융	증권	2.3	(7.23)	4.31	13.66
	이마트	139480 KS	한국	필수소비재	생필품소매	6.8	(6.46)	(4.14)	(13.13)
	SK 이노베이션	096770 KS	한국	에너지	정유	9.2	(5.91)	(3.73)	(32.51)

주: 주간수익률은 8/18~8/22 기준, 월간수익률은 7/23~8/22 기준, 연초대비 수익률은 12/31 이후 성과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표 11. 이머징 주간 상위·하위수익률 종목리스트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주간수익률 (%)	월간수익률 (%)	연초대비 (%)
아다니 포트&스페셜 이코노믹은 'Dhamra'항구의 수용능력을 연 간 2500만톤에서 1억톤으로 늘린 다는 계획 발표하며 주가 상승	아다니 포트 & 스페셜 이코노믹	ADSEZ IN	인도	산업재	교통인프라	9.3	9.29	6.40	91.57
	Yang Ming Marine Transport	2609 TT	대만	산업재	해운	1.2	8.37	9.68	(2.51)
	타이완 시멘트	1101 TT	대만	소재	건축소재	5.7	7.83	12.61	7.14
	란박시 래버러토리스	RBXY IN	인도	헬스케어	제약	4.2	7.26	15.21	42.64
	인도 국립은행	SBIN IN	인도	금융	은행	29.0	6.87	(0.62)	42.92
대만의 양명해운은 올해 2Q 실 적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주가 호조	화난 파이낸셜 홀딩스	2880 TT	대만	금융	은행	5.6	6.16	2.99	12.20
	E.Sun Financial Holding	2884 TT	대만	금융	은행	4.3	5.92	6.21	0.26
	타타 모터스	TTMT IN	인도	경기소비재	자동차	24.1	5.56	5.51	35.91
	태국 공항공사	AOT-R TB	태국	산업재	교통인프라	9.7	5.56	0.88	43.85
	줄리비 푸즈	JFC PM	필리핀	경기소비재	호텔레저	4.4	5.35	6.41	10.34
	종목명	티커	국가	섹터	업종	시가총액 (US\$ bil.)	주간수익률 (%)	월간수익률 (%)	연초대비 (%)
치열한 LED 시장 경쟁 속에 수 량 증가 폭보다 가격 인하 폭이 큰 영향으로 에피스타 하락세	에피스타	2448 TT	대만	IT	반도체&장비	2.1	(9.84)	(17.58)	6.97
	IOI	IOI MK	말레이시아	필수소비재	음식료	10.1	(5.19)	(5.00)	0.85
	충칭창안자동차	200625 CH	중국	경기소비재	자동차	10.5	(5.09)	(1.50)	7.19
	건팅 플랜테이션즈	GENP MK	말레이시아	필수소비재	음식료	2.6	(4.36)	(11.40)	(8.51)
	얼라이언스 글로벌	AGI PM	필리핀	산업재	지주	6.1	(3.85)	(7.41)	(3.10)
	쿠알라룸푸르 케풍	KLK MK	말레이시아	필수소비재	음식료	7.9	(3.26)	(4.89)	(9.48)
	BEC 월드	BEC-R TB	태국	경기소비재	미디어	3.0	(3.16)	(10.24)	(8.91)
	아다로 에너지	ADRO II	인도네시아	에너지	정유	3.5	(3.09)	13.57	15.14
	UEM 랜드 홀딩스	UEMS MK	말레이시아	금융	부동산	2.9	(2.96)	(4.37)	(16.53)
	건팅	GENT MK	말레이시아	경기소비재	호텔레저	11.7	(2.83)	(2.53)	(6.24)

주: 주간수익률은 8/18~8/22 기준, 월간수익률은 7/23~8/22 기준, 연초대비 수익률은 12/31 이후 성과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산업분석 | 조선

연비, 조선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중국선박 가격은 한국 선박보다 훨씬 비싸다

연비를 고려한 선박 가격은 중국 선박이 한국 선박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비싸다. 선박의 연비경쟁으로 중국 선사들도 한국 조선업을 찾기 시작했다.

선주들과 그들의 고객인 용선주들은 금액으로 비교되는 선박 간의 연비차이를 주목하고 있다. 동일속도에서 연료소모량이 적거나, 동일 연료소모량에서 추진속도가 더 빠른 Eco-shi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다.

연비가 우수한 선박과 그렇지 못한 선박, 한국 조선소와 중국 조선소, 중고선과 Eco-ship은 차별화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연비'경쟁이 한국 조선업에 성장의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조선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선박간의 '연비'경쟁은 선박발주, 선가움직임, 한국과 중국의 경쟁, 해운업 수익의 원천 등 조선업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미국 Shale혁명으로 선박의 연료 마저 달라지고 있다.

올해 조선업 수주량은 하반기에 몰려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올해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은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다. 늘어난 수주잔고를 통해 선별수주에 들어간 조선업체들은 이제 2017년 Slot을 두고 상선 영업을 재개 하고 있다. 하반기 수주의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상선이 될 것이다. 상선수주량이 늘수록 조선업의 향후 실적은 개선된다.

조선업 Top picks :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업 투자 의견을 Overweight으로 제시하며 최선희주는 현대미포조선, 차선희주는 대우조선해양을 제시한다. 목표주는 현대미포조선 200,000원, 대우조선해양은 37,000원을 제시한다.

가을이 오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수주량이 다시 늘어날 것에 앞서 급격히 하락한 조선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수주계약이 늘어난 이후가 되면 주가는 분명 크게 빠진 것의 반작용으로 이미 크게 상승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종목명	투자의견	TP(12M)	CP(8월22일)
현대중공업(009540)	BUY	200,000원	135,500원
삼성중공업(010140)	Neutral	23,000원	26,400원
대우조선해양(042660)	BUY	37,000원	22,950원
현대미포조선(010620)	BUY	200,000원	109,500원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2	2013	2014F	2015F	2016F
매출액	십억원	87,936.3	88,313.7	89,831.9	93,620.4	97,553.7
영업이익	십억원	3,791.4	1,881.9	394.1	2,582.7	3,451.3
세전이익	십억원	2,878.8	961.2	(475.9)	1,664.6	2,440.6
순이익	십억원	2,089.2	753.3	(475.9)	1,664.6	2,440.6
EPS	원	4,030	1,453	(918)	3,211	4,708
증감율	%	(53.00)	(63.94)	적전	흑전	46.62
PER	배	16.77	51.21	NA	14.50	9.89
PBR	배	1.09	1.16	0.75	0.70	0.64
EV/EBITDA	배	13.76	18.93	30.45	10.45	7.82
ROE	%	6.62	2.30	(1.46)	5.01	6.78
BPS	원	62,022	64,137	61,988	66,220	72,707
Net DER	%	33.2	36.6	35.6	31.5	23.4

주: 업종합산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총 4개 기업 합산임
자료: 하나대투증권



Analyst 박무현
02-3771-7771
bossniceshot@hanafn.com

RA 유재선
02-3771-8011
jaeseon.yoo@hanafn.com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연비, 조선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레포트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nvestment Summary

해운업은 '연비'를 주목하고 있다

해운업의 핵심 경쟁력은 '연비'

리먼사태 이후 유가와 운임의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해운업 수익의 원천은 '운임'에서 '연비'로 달라졌다. '연비'가 우수한 선박을 보유하는 것이 해운업의 경쟁력인 것이다. 조선업 역시 '연비'가 우수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그렇지 못한 조선소의 차별화는 심화되고 있다.

아래 [표 1.2]은 선박간의 연비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실제 용선주들이 참고하고 있는 선박의 '연비'정보이다. 선박의 '연비'차이를 해운업의 주요 참여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연비 차이가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이 연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에 인도한 APL Salalah는 과거에 쓰이던 Short stroke 구조의 K-Type 엔진이 탑재되었음에도 가장 최근에 인도된 중국 양쯔강 조선의 1만 TEU급 컨테이너선 Hanjin namu보다 연비는 대략 30% 더 좋다. 설계능력의 차이가 연비경쟁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MR탱커 영역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앞선 연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현대비나신조선이 올해 인도한 MR탱커는 중국 광저우조선이 인도한 선박보다 연비는 대략 3%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박의 연비경쟁은 조선소의 기본 설계능력에 좌우

선박의 연비차이는 조선소의 기본설계 능력에 좌우되며 이는 우수한 설계인력에서 나온다. 앞으로의 조선업 분석은 얼마나 많은 설계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핵심 지표이다. 연비 경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 내에도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다.

표 1. 컨테이너선 연비 비교

선박이름	인도	TEU	톤-마일 당 CO2 배출량	연비 차이	조선소	엔진 타입
Marie Maersk	2013	18,270	9.849 gram		대우조선해양	8S80ME-C9.2
Maersk MC-Kinney Moller	2013	18,270	9.857 gram	0.1%	대우조선해양	8S80ME-C9.2
CMA CGM Marco Polo	2012	16,020	10.941 gram	11.1%	대우조선해양	14RT-FLEX96C
APL Salalah	2012	10,000	10.384 gram		대우조선해양	12K98ME-C6.2
CSCL Summer	2014	10,000	12.431 gram	19.7%	대련 조선	10S90ME-C9.2
Hanjin Namu	2014	10,000	13.420 gram	29.2%	양쯔강 조선	10S90ME-C9.2
MOL Bravo	2014	10,000	13.431 gram	29.3%	안지 신 후 조선	10S90ME-C9.2
Hyundai Victory	2014	13,100	8.943 gram		대우조선해양	10S90ME-C9.2
OOCL Singapore	2014	13,208	10.007 gram	11.9%	삼성중공업.	12S90ME-C9.2
NYK Hyperion	2013	13,208	10.020 gram	12.0%	삼성중공업.	12S90ME-C9.2
APL Merlion	2014	14,000	10.904 gram	21.9%	현대삼호중공업	11S90ME-C9.2
Thalassa Tyhi	2014	13,806	11.178 gram	25.0%	현대중공업.	11S90ME-C9.2
CSCS Star	2011	14,074	11.326 gram	26.6%	삼성중공업.	12K98MC-C7.2
COSCO Belgium	2013	13,386	11.615 gram	29.9%	난통 COSCO KHI	12K98ME 7.2
Hanjin Sooho	2012	14,000	12.065 gram	34.9%	현대중공업.	12RT-FLEX96C

자료: shipping efficiency/vessel environmental rating display, 하나대투증권 (APL Salalah는 구형 엔진(K-Type)이 탑재된 선박)

표 2. MR탱커 연비 비교

선박이름	인도	DWT	톤-마일 당 CO2 배출량	연비 차이	조선소	엔진 타입
Bubyan	2014	46,320	5.450 gram		현대미포조선	7RT-Flex 50D
STI DAMA	2014	50,137	6.308 gram	15.7%	SPP조선	6S50ME-B9.3
Eships Taweelah	2014	49,973	6.435 gram	18.1%	현대비나신조선	6G50ME-B9.3
Tenacity	2014	50,500	6.629 gram	21.6%	광저우조선	6S50MC-C8.2

자료: shipping efficiency/vessel environmental rating display, 하나대투증권

중국 선박은 한국선박보다 훨씬 비싸다

한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선박을 발주했던 선사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

연비를 고려한 선박 가격은 중국 선박이 한국 선박보다 실제로는 훨씬 비싸다. 선박의 연비 경쟁으로 중국 선사들도 한국 조선업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이어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중국으로부터 19,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표 3,4]는 연비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금액차이만큼 실제 선가는 더 비싼 것이다.

컨테이너선을 10년 가량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1만TEU급 컨테이너선(Salalah)와 중국 양쯔장조선이 인도한 동급의 (Hanjin Namu)호의 10년 연료비 총액을 5%로 현가 할인한 금액은 각각 2.2억불과 2.8억불이다.

두 선박의 10년간의 연료비는 6,400만불 가량 차이가 발생된다. 지난주 Clarksons에서 발표된 1만TEU급 컨테이너선 신조선 가격은 9,800만불이다.

양쯔장조선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했을 때보다 연료비 차이 만큼인 6,400만불 가량 더 높은 금액을 선박투자금액으로 지불한 셈이다. 선박을 발주할 당시 '연비'를 고려했다면 양쯔장조선에 선가를 6,400만불 가량 더 낮출 것을 요구했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일하게 수주선가 1억불을 두고 수주경쟁을 하지만, 선주는 중국 조선소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한국보다 10~20% 낮은 선가를 이끌어 낸 것에 크게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운항비(70% 이상이 연료비용)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한국보다 40% 이상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선주들과 용선주들은 금액으로 비교되는 선박의 연비차이를 주목하고 있다. 동일속도에서 연료소모량이 적거나, 같은 연료에서 속도가 더 빠른 Eco-ship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이다.

연비가 우수한 선박과 그렇지 못한 선박, 한국 조선소와 중국 조선소, 중고선과 Eco-ship은 차별화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연비'경쟁이 한국 조선업에 성장의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표 3. 1만TEU급 컨테이너선 10년 누적 연료비 금액 차이 (APL Salalah호는 22Knot 속도에서 평균 연료소모량 적용, 연료가격은 600달러/톤)

조선소	선박이름	CO2 배출량	연비 차이	1일 연료 소모량(톤)	1일 연료비 (달러)	1년 연료비 (백만불)	10년 누적 연료비 (백만불)	5% 현가 할인 10년 연료비 (백만불)	연료비 차이 (백만불)
대우조선해양	APL Salalah	10,384 gram		213	127,800	36	358	220	
대원 조선	CSCL Summer	12,431 gram	19.7%	255	152,993	43	428	263	43
양쯔장 조선	Hanjin Namu	13,420 gram	29.2%	275	165,165	46	462	284	64
안지신후 조선	MOL Bravo	13,431 gram	29.3%	276	165,301	46	463	284	64

자료: Clarksons, 하나대투증권

표 4. 13000-14000TEU급 컨테이너선 10년 누적 연료비 금액 차이 (Hyundai Victory호는 22Knot 속도에서 평균 연료소모량 적용)

조선소	선박이름	CO2 배출량	연비 차이	1일 연료 소모량(톤)	1일 연료비 (달러)	1년 연료비 (백만불)	10년 누적 연료비 (백만불)	5% 현가 할인 10년 연료비 (백만불)	연료비 차이
대우조선해양	Hyundai Victory	8,94		250	150,000	42	420	258	
삼성중공업	OOCL Singapore	10.00	11.9%	280	167,846	47	470	289	31
삼성중공업	NYK Hyperion	10.02	12.0%	280	168,064	47	470	289	31
현대삼호중공업	APL Merlion	10.90	21.9%	305	182,892	51	510	314	57
현대중공업	Thalassa tyhi	11.18	25.0%	313	187,487	52	520	322	64
삼성중공업	CSCL STAR	11.33	26.6%	317	189,970	53	530	327	69
COSCO KHI	COSCO Belgium	11.62	29.9%	325	194,817	55	550	335	77
현대중공업	Hanjin sooho	12.07	34.9%	337	202,365	57	570	348	90

자료: Clarksons, 하나대투증권

기업분석 | LIG에이디피 (079950.KQ)

W-OLED 확산을 기다리며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0,000원 제시

LG디스플레이, BOE, CSOT 등 다변화된 고객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W-OLED 핵심 장비에 대한 공정별 Line up을 확보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므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0,000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 10,000원은 2015년 예상 EPS에 2015년 글로벌 Peers 평균 PER 9.4배를 적용한 것이다.

W-OLED 공정별 핵심장비 Line-up 완료

LIG에이디피는 기존 LCD 공정 중 Dry Etcher와 검사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해 왔었지만, 주요 고객사인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W-OLED를 개발 및 양산함에 따라 Dry Etcher(Backplane 공정), Evaporator(OLED 증착공정), 합착기(봉지공정), 검사기 등의 W-OLED 핵심장비에 대해 다양한 Line Up을 확보했다. 2015년 이후 LG디스플레이의 OLED 라인 증설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수요가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 패널업체들 역시 LCD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 BOE, CSOT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동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다.

2014년 하반기 실적 개선 본격화

14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66억원(-8%QoQ), 영업적자 61억원(적지)으로 수주에 비해 실적개선이 미흡했다. 1분기대비 영업적자가 확대된 것은 일회성 R&D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598억원(+260%QoQ), 영업이익 84억원(흑전)으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2분기말 수주잔고 689억원과 하반기 패널업체들의 투자에 따른 신규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실적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5년 실적도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BUY

TP(12M): 10,000원 | CP(8월22일): 5,690원

Key Data		Consensus Data	
KOSDAQ 지수(pt)	566.35		
52주최고/최저(원)	5,690/4,155	매출액(십억원)	114.8 192.3
시가총액(십억원)	132.0	영업이익(십억원)	(4.3) 17.9
시가총액비중(%)	0.10	순이익(십억원)	(5.9) 16.1
발행주식수(천주)	23,200.0	EPS(원)	(254) 694
60일 평균거래량(천주)	93.9	BPS(원)	1,394 2,122

14년 배당금(예상,원)	-
14년 배당수익률(예상,%)	-
외국인 지분율(%)	0.61
주요주주 지분율(%)	
구분옥 외 12인	25.39
LG디스플레이	12.93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6.7 21.6 4.0
상대	26.4 13.5 (4.9)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2	2013	2014F	2015F	2016F
매출액	십억원	22.9	151.6	151.9	219.8	221.7
영업이익	십억원	(18.7)	7.6	4.9	27.2	27.3
세전이익	십억원	(22.3)	4.6	3.8	25.8	26.2
순이익	십억원	(20.1)	4.6	4.0	26.1	26.5
EPS	원	(867)	200	172	1,124	1,143
증감율	%	N/A	(123.07)	(14.00)	553.49	1.69
PER	배	N/A	23.14	33.01	5.06	4.98
PBR	배	1.62	2.70	3.02	1.89	1.37
EV/EBITDA	배	N/A	12.31	16.03	3.73	2.83
ROE	%	(61.93)	13.38	10.31	48.46	33.09
BPS	원	1,509	1,713	1,883	3,007	4,149
Net DER	%	96.5	90.0	34.0	(37.9)	(55.1)



Analyst 남대종
02-3771-7775
dinam@hanafn.com

RA 이원식
02-3771-7721
wonsiklee@hanafn.com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W-OLED 확산을 기다리며” 레포트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0,000원 제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0,000원 제시

LIG에이디피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0,000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투자의견 BUY를 제시하는 이유는

- ① LG디스플레이, BOE, CSOT 등 다변화된 고객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 ② W-OLED 핵심 장비에 대한 공정별 Line up을 확보하고 있고,
- ③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목표주가 10,000원은 2015년 예상 EPS 1,124원에 2015년 글로벌 Peers 평균 PER 9.4배를 적용한 것이다. 동사의 과거 고점 PBR은 3.3배로써 2015년 예상 BPS 3,007원에 과거 고점 PBR을 적용하더라도 목표주가 10,000원은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 1. Peers Valuation

(단위: USDmn)

Name		LIG에이디피	SFA	비아트론	AP시스템	테라세미콘	Applied Materials	Ulvac
Nation		KR	KR	KR	KR	KR	US	JP
단위		USD	USD	USD	USD	USD	USD	USD
주가 (\$)		5.6	41.7	12.2	7.5	17.4	22.2	14.1
시가총액		129.4	747.3	130.1	175.8	173.1	26,989.8	694.1
매출액	2013	148.9	412.1	29.9	226.4	45.8	7,509.0	1,880.8
	2014F	149.2	443.4	60.6	271.0	73.1	9,082.0	1,788.4
	2015F	215.9	558.0	101.1	320.4	160.6	10,124.6	1,874.2
영업이익	2013	7.5	53.0	3.6	14.1	1.4	769.0	70.4
	2014F	4.8	54.3	10.4	13.1	8.8	1,786.0	117.3
	2015F	26.7	78.0	20.5	21.1	29.8	2,249.1	143.1
순이익	2013	4.5	54.7	3.6	11.0	0.4	256.0	(43.8)
	2014F	3.9	54.6	10.1	13.7	14.3	1,260.5	80.1
	2015F	25.6	72.2	19.9	23.3	35.7	1,672.4	97.9
EPS (\$)	2013	0.2	3.1	0.3	0.5	0.0	0.2	(1.0)
	2014F	0.2	3.0	0.9	0.5	0.8	1.1	1.5
	2015F	1.1	4.1	1.9	0.8	2.9	1.4	1.8
PER (x)	2013	23.1	12.0	30.2	17.5	319.0	30.0	N/A
	2014F	33.0	13.8	12.8	13.6	21.4	20.8	9.5
	2015F	5.1	10.2	6.6	9.2	6.0	16.3	7.7
BPS (\$)	2013	1.7	23.8	5.1	4.4	5.7	5.9	8.2
	2014F	1.9	27.3	6.2	5.2	6.6	6.4	12.1
	2015F	3.0	30.4	8.0	5.9	9.4	7.2	14.0
PBR (x)	2013	2.7	1.6	2.1	2.1	2.7	3.0	1.0
	2014F	3.0	1.5	1.6	1.4	2.6	3.4	1.2
	2015F	1.9	1.4	1.2	1.3	1.9	3.1	1.0
EV/EBITDA (x)	2013	12.3	9.9	21.8	11.5	35.7	18.1	8.6
	2014F	16.0	7.0	6.2	8.6	14.1	12.9	6.3
	2015F	3.7	4.4	3.2	6.7	4.5	9.8	5.1
ROE (%)	2013	13.4	14.9	7.3	12.9	0.8	3.6	(11.2)
	2014F	10.3	11.5	17.0	14.3	13.1	15.6	10.8
	2015F	48.5	14.2	26.0	14.2	35.0	17.2	12.7

주: LIG에이디피 추정치는 당사 추정치 / 그 외 기업 추정치는 컨센서스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2. W-OLED 공정별 핵심장비 Line-up 완료

OLED 공정 Full Line-up 확보

LIG에이디피는 기존 LCD 공정 중 Dry Etcher와 검사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해 왔었지만, 주요 고객사인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W-OLED를 개발 및 양산함에 따라 Dry Etcher(Backplane 공정), Evaporator(OLED 증착공정), 합착기(봉자공정), 검사기 등의 W-OLED 핵심장비에 대해 다양한 Line Up을 확보했다. 2015년 이후 LG디스플레이의 OLED 라인 증설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는 14년 4분기 M2 라인을 본격 가동시킬 예정이다. M2 라인은 AM OLED TV 패널 양산의 확대를 의미하며, 양산 수율이 80%에 도달하면 대형 AM OLED 라인 증설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 패널업체들 역시 LCD 라인을 증설하고 있어 BOE, CSOT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동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다.

표 2. AM OLED 장비 업체 Supply chain

구분	방식	세부공정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Backplane	LTPS	CVD	AKT	AKT, Ulvac
		Dry Etcher	TEL, LIG에이디피	TEL, YAC, 아이씨디
		ELA	JSW	AP System
	Oxide	열처리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CVD	AKT	
		Sputter	Ulvac, 아바코	
OLED	WOLED	Dry Etcher	TEL, LIG에이디피	TEL, 아이씨디, 원익IPS
		열처리	비아트론	
		증착	Cannon, YAS, LIG에이디피	Cannon
	RGB	Source	YAS	
		증착	Cannon	Cannon, Hitachi
				AP System, LTS, Hitachi
Encap	Frit		Hitachi, 아바코	
	Face Seal		LGE, 아바코, 주성엔지니어링	
Plastic	Thin Film		주성엔지니어링	SNU(유기), Ulvac(무기)
	Plastic 합착		LGE, LIG에이디피	테라세미콘
Plastic	PI Curing		-	AP System, LTS
	LLO		-	

자료: 하나대투증권

표 3. 주요 고객사 신규 라인 증설 계획 현황(글래스 투입 기준)

(단위: 천장)

Manuf.	Factory	Phase	Gen.	Tech.	Application	1Q14	2Q14	3Q14F	4Q14F	1Q15F	2Q15F	3Q15F	4Q15F
AUO	AUO Taichung L8B	2	8	a-Si/Oxide	LCD		15	30	30	30	30	30	30
BOE	BOE Chongqing B8	1	8	a-Si/Oxide	LCD					15	90	90	
		2	8	a-Si	LCD						60	90	
	BOE Hefei B3	5	6	a-Si	LCD	0	9	21	21	21	21	21	21
	BOE Hefei B5	1	8	a-Si/Oxide	LCD+AMOLED		60	90	90	90	99	99	99
		2	8	a-Si	LCD		0	75	120	150	180	201	201
CEC	PND Nanjing G8	1	8	a-Si/Oxide	LCD					0	60	150	180
CSOT	CSOT Shenzhen T2	1	8	a-Si	LCD						15	120	120
		2	8	a-Si	LCD								30
LG Display	LGD Guangzhou 1	1	8	a-Si	LCD		75	180	180	180	180	180	180
		2	8	a-Si	LCD				30	75	90	90	90
		3	8	a-Si	LCD								30
	LGD Paju P8	5	8	Oxide	AMOLED						30	78	78
	LGD Paju P9 G8	2	8	Oxide	LCD	0	30	30	30	45	45	60	90
	LGP Kumi P6	5	6	a-Si/Oxide	LCD							15	15
	LGP Kumi AP3 LTPS (P6)	2	6	LTPS	LCD	0	0	0	15	45	45	45	45
		3	6	LTPS	AMOLED	0	0	0	0	0	0	0	15
총합계						0	189	426	516	636	810	1,239	1,404

자료: 하나대투증권

3. 2014년 하반기 실적 개선 본격화

하반기 신규 수주 지속될 전망

14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66억원(-8%QoQ), 영업적자 61억원(적지)으로 수주에 비해 실적개선이 미흡했다. 1분기대비 영업적자가 확대된 것은 일회성 R&D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598억원(+260%QoQ), 영업이익 84억원(흑전)으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2분기말 수주잔고 689억원과 하반기 패널업체들의 투자에 따른 신규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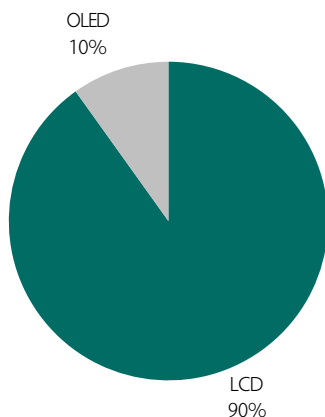
하반기 실적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5년 실적도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198억원, 영업이익 27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5%, 458% 증가할 전망이며, OLED 장비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표 4. 분기별 실적 추정

		1Q14	2Q14	3Q14F	4Q14F	1Q15F	2Q15F	3Q15F	4Q15F	2014F	2015F
매출액	LCD	18.1	16.6	49.8	52.3	31.4	28.2	25.4	22.9	136.9	107.9
	OLED	0.0	0.0	10.0	5.0	5.9	14.6	36.6	54.8	15.0	111.9
	합계	18.1	16.6	59.8	57.3	37.2	42.9	62.0	77.7	151.9	219.8
매출비중	LCD	100%	100%	83%	91%	84%	66%	41%	29%	90%	49%
	OLED	0%	0%	17%	9%	16%	34%	59%	71%	10%	5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영업이익		-4.8	-6.1	8.4	7.5	3.0	3.9	8.7	11.7	4.9	27.2
	영업이익률	-27%	-37%	14%	13%	8%	9%	14%	15%	3%	12%
	Growth	적전	적지	흑전	-11%	-60%	30%	125%	34%	-35%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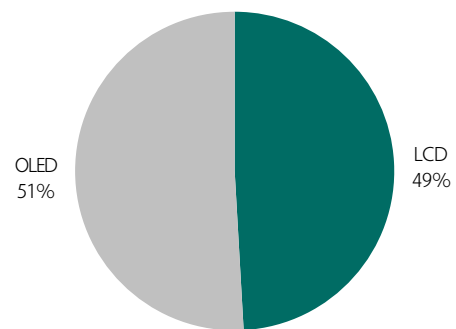
자료: 하나대투증권

그림 1. 2014년 매출 비중



자료: LIG에이디피, 하나대투증권

그림 2. 2015년 매출 비중



자료: LIG에이디피, 하나대투증권

한주간 (8월 18일 ~ 8월 22일간) 기업탐방 노트

I 기업분석부

담당기업 애널리스트	Check point	코멘트 및 판단
미래에셋증권 (037620.KS) 한정태 3771-7773	2분기 실적 Review - 실적개선 요인 점검	2Q 경상이익 599억. 상반기 세전이익 1,197억원으로 YoY 81.4%증가 - 대형사중 ROE 8.4%로 가장 높고 연간으로도 높을 것으로 추정 - 판관비가 750억원 내외로 감소, 자산관리 수익과 Trading이익 증가가 한 몫 - 펀드판매잔고도 20.0조원으로 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고무적.
NHN엔터테인먼트 (181710.KS) 황승택 3771-7519	- 향후 라인업 - 실적개선 요인	8월 18일 “좀비바이러스” 오픈, 고퀄리티 3D액션 “LINE: 레버넌트게이트” 사전등록 시작, 9월까지 다양한 모바일게임 국내외에서 출시될 예정 - 규제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었던 보드게임도 모바일 포커류 상용화 및 북미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출시를 통해 돌파구 마련할 것으로 보임 3분기 이후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 기대
삼화왕관 (005440.KS) 심은주 3771-8538	동향점검	- 병마개 제조 점유율 1위 업체 - 병마개 사업은 기술력 차이로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 가능 - 매년 주당 배당금 올리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나 최근 주가 상승으로 배당 수익률 하락 -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 유효

담당기업 애널리스트	Check point	코멘트 및 판단
호텔신라 (008770.KS) 박종대 3771-8544	• 인천공항 면세점 현황 • 해외면세점 진출 • 온라인 • 3분기 현황	• 인천공항 3분기 들어 호조: BEP에서 이익 전환, 매출도 YoY (+) 증가세 전환, 내국인 회복과 중국인 비중 증가 영향 • 마카오: 우선협상자 선정되었으나 복수사업자 운영, 마카오/시드니 9~10월 발표 • 온라인 중국 사이트 개설 양호(연간 400억원 목표) • 3분기 현황: 면세점 전년도 높은 베이스로 성장률 2분기대비 둔화, 서울 호텔 입실률 7월 70%(2Q 65%), 호텔사업부 3Q BEP/4Q 이익 전환 예상
GKL (114090.KS) 박종대 3771-8544	• 3분기 현황 • 영업확대 전략 • 영업면적 확대 계획	• 7월 양호, 매출 YoY 목표대비 달성 초과달성 중 • 영업확대 전략: 전체적으로 드롭액 증가에 초점 1) 정켓 확대: 선별 중 9월 초 계약, 2) 전자바카라 도입(9월): 힐튼 50대/강남 30대, 3) 매스마케팅 확대, 4) 콤프 2~3%p 증가 가능 • 영업면적 확대: 1) 강남영업장 확장: 내년 공사, 2) 복합리조트 공모제 전환 긍정적, 3) 영종도 사업 검토 계획
신세계 (004170.KS) 박종대 3771-8544	• 3분기 전망 • 영업면적 확대 계획 • 신세계사이먼 현호아	• 7월 실적/3분기 전망: 기존점 3.8%, 추석 수요로 8월 긍정적, 온라인 월 10억 적자 당분간 지속, 작년 정규직 전환 증가 영향 7월부터 소멸 • 영업면적 확대: 2016년 외형 +60% 증가, 센텀리뉴얼/하남/동대구/김해점/강남리뉴얼 • 신세계사이먼: 2013년 관리매출 7500억, 여주 확장 내년 3월 완료 매출 50% 이상 증가

주간 투자유망종목

I 자산분석실 투자정보팀

한화생명 (088350.KS)



주간 목표주가

7,500

주간 손절가

6,600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8/25	6,970	신규	0.00%

- 적극적인 배당정책 등 모멘텀 요소 존재
- 금리 하락 부담이 감소한 가운데, 3분기 일회성 이익 급증 전망

롯데칠성 (005300.KS)



주간 목표주가

2,500,000

주간 손절가

2,000,000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8/25	2,131,000	신규	0.00%

- 신사업(맥주) 기대감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
- 해외 음료 사업 강화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 유효

아시아나항공 (020560.KS)



주간 목표주가

5,000

주간 손절가

4,500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8/25	4,690	신규	0.00%

- 7월과 8월 여객 성수기 진입으로 3분기 양호한 실적 예상
- 9월 이후 IT 신제품 효과 기대로 화물 부문 실적 개선 기대

하나투어 (039130.KS)



주간 목표주가

76,000

주간 손절가

63,500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8/25	70,000	신규	0.00%

- 국내 M/S 1위 업체로서 높은 경쟁력 및 여행 수요 확대 전망
- 2010년 이후 평균 PER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도 매력적

파라다이스 (034230.KQ)



주간 목표주가

42,000

주간 손절가

33,000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8/25	38,300	신규	0.00%

- 12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활성화 대책'의 최대 수혜 전망
- 견조한 중국인 인바운드 기반으로 하반기 이익 모멘텀 회복 기대

씨젠 (096530.KQ)



주간 목표주가

65,000

주간 손절가

55,000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8/25	58,000	신규	0.00%

- 호흡기 진단 제품 입찰확대 및 자궁경부암 진단 제품 보험 급여 확보
- 향후 B2B 성과 도출 가능성 기대

주 : 수익률은 추천일 이후 수익률
투자유망종목 포트폴리오의 주간단위(매주 월요일)로 교체됩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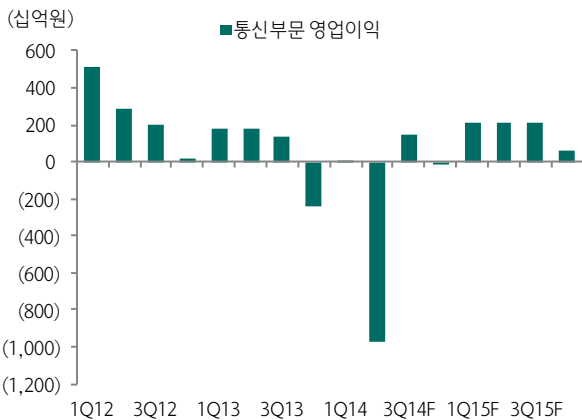
월간 투자유망종목

I 자산분석실 투자정보팀

KT (030200.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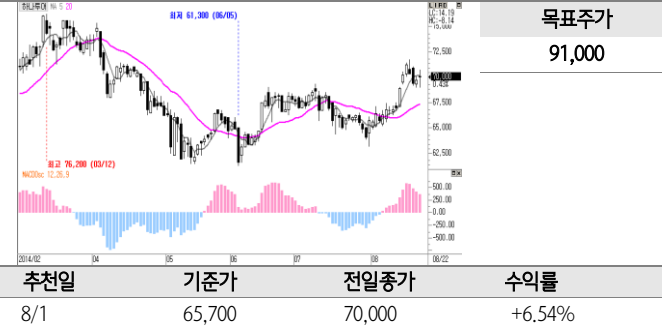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2	2013	2014F	2015F	2016F
매출액	십억원	23,790.4	23,810.6	23,671.4	24,287.1	24,406.9
영업이익	십억원	1,213.8	839.4	(203.1)	1,346.7	1,535.2
세전이익	십억원	1,422.6	(5.3)	(741.5)	1,115.1	1,341.0
순이익	십억원	1,057.1	(162.4)	(694.5)	760.1	9,326
EPS	원	4,162	(622)	(2,659)	2,911	3,572
증감율	%	(15.24)	적전	적확	흑전	22.71
PER	배	8.53	NA	NA	11.45	9.33
PBR	배	0.70	0.65	0.74	0.69	0.67
EV/EBITDA	배	3.50	4.16	6.31	4.51	4.23
ROE	%	8.41	(1.25)	(5.88)	6.08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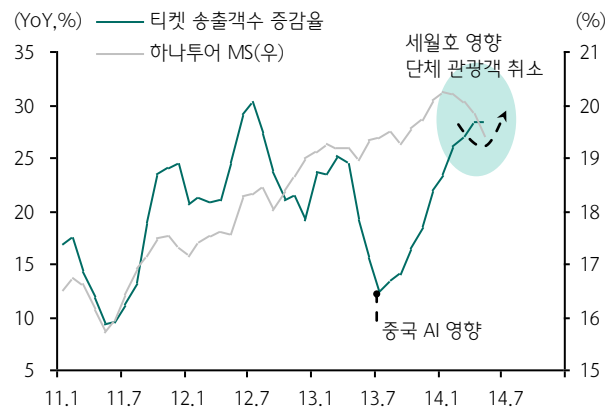


- 시장 고착화 가능성을 감안한 이동전화 M/S, ARPU, 인건비, 마케팅비용, 감가상각비를 감안 시 3Q부터 통신 부문 실적 향상 예상
- 내년 예상 실적 기준 현재 P/E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실적 개선 시 낮은 P/B의 재조명 기대
- 정부의 ICT/컨텐츠 육성 정책을 감안할 때 인터넷 부분 종량제, 결합 상품 할인을 제한 등의 이슈 부각 예상
- 최근 약재였던 2.1GHz 주파수 용도 변경 이슈 역시 10~11월 중 해결 가능성이 높아 금년 내 3밴드CA 구현 가능할 전망

하나투어 (039130.KS)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2	2013	2014F	2015F	2016F
매출액	십억원	259.2	297.6	323.3	358.1	389.5
영업이익	십억원	34.7	36.5	37.2	44.7	50.6
세전이익	십억원	39.6	43.0	44.1	51.7	57.7
순이익	십억원	30.0	32.7	33.6	39.4	44.0
EPS	원	2,580	2,846	2,896	3,394	3,786
증감율	%	50.19	10.32	1.75	17.21	11.53
PER	배	23.65	22.73	22.14	18.89	16.93
PBR	배	4.32	3.98	3.55	3.14	2.77
EV/EBITDA	배	14.12	14.41	13.38	10.96	9.33
ROE	%	19.83	18.55	16.89	17.66	17.41



- 상반기 하나투어에 대한 우려 2가지는 해소 중
- 첫 번째 우려 세월호 영향 실적 부진: 2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세. 하반기 전년도 기저효과(샌프란시스코 항공사고/태국 불안 등) 기대 및 상반기 취소 물량에 대한 이연수요 기대
- 두 번째 우려 중장기적으로 온라인화/FTT 시장 확대에 인한 MS 하락: MS 1위 업체의 높은 경쟁력으로 방어 중. 패키지 부문을 캐시카우로 온라인/FTT 신규 성장 동력 확보 통해 MS 간극 더욱 확대 전망
- 현재 하나투어 주가 12MF PER 15.4배로 1) 여행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2) MS 1위 업체로서 높은 경쟁력, 3) 온라인/FTT 신규 성장 동력 확보로 인한 추가적인 MS 상승 가능성 감안 시 역사적 평균(2010년 이후 22.5배) 대비 낮을 이유가 없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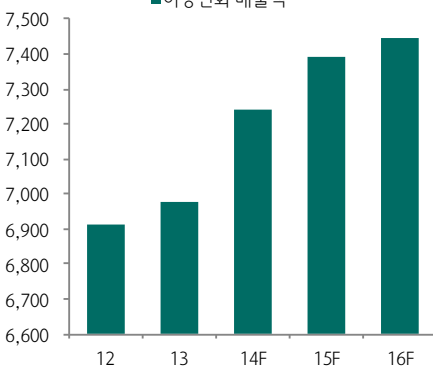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KT (030200.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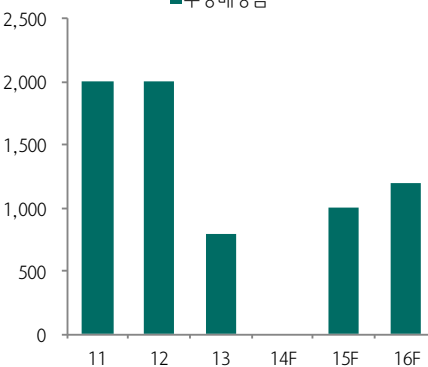
Analyst 김홍식 02-3771-7505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8/18		33,800	33,800		+0.00%	
투자지표	단위	2012	2013	2014F	2015F	2016F
EPS	원	4,162	(622)	(2,659)	2,911	3,572
PER	배	8.53	NA	NA	11.61	9.46
PBR	배	0.70	0.65	0.75	0.70	0.68
EV/EBITDA	배	3.50	4.16	6.39	4.57	4.29
ROE	%	8.41	(1.25)	(5.88)	6.08	7.29

(십억원) ■이동전화 매출액



(원) ■주당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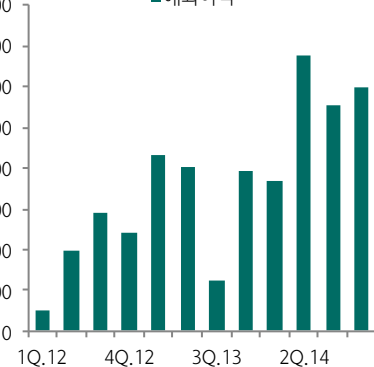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낮은 LTE 보급률, 최근 급감 중인 CAPEX 추이, 대규모 명퇴 효과를 감안 시 이동전화 매출액,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에서 개선 효과가 커 향후 통신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 개선 양상이 기대
- 2.1GHz 주파수 용도 변경(3G → LTE) 유력, 이제 3밴드 CA 가능해져 향후 네트워크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떨쳐버릴 수 있을 전망
-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MNP(번호이동) 감축 및 이동전화 M/S 고착화 예상, ARPU 상승과 M/S 유지로 이동전화 매출액 증가 기대감 높아질 듯
- 정부 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통신/방송 결합 상품 할인을 제한 가할 전망. 가장 큰 문제점인 KT 유선 매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한국가스공사 (036460.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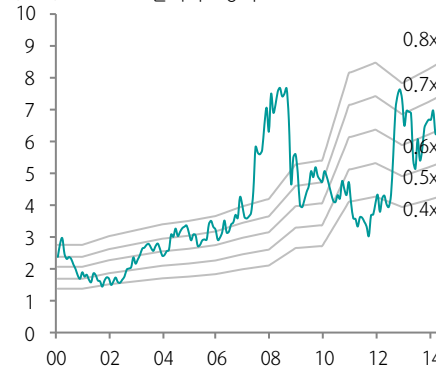
Analyst 신민석 02-3771-7566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8/18		57,100	56,000		-1.93%	
투자지표	단위	2012	2013	2014F	2015F	2016F
EPS	원	4,580	(2,444)	5,544	6,270	8,404
PER	배	15.85	NA	10.61	9.38	7.00
PBR	배	0.69	0.68	0.57	0.54	0.50
EV/EBITDA	배	13.22	16.44	12.76	12.12	11.29
ROE	%	4.41	(2.29)	5.51	5.88	7.38

(억원) ■해외이익



(만원) 한국가스공사 PBR Band



- 2014년 영업이익은 공급비용 조정으로 이익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미수금 회수단가 인상으로 연간 1.2조원 회수가 가능해 재무구조 개선 예상
- 해외 자산 매각과 영구EB 발행으로 부채비율 400% 이하 유지
- 해외 사업 이익 확대로 2015년 이후 영업이익 증가세 유지
- 2014년 2분기 해외이익은 676억원이며, 하반기 생산량 증가로 분기 600억원 수준 달성 가능. 오는 9월 이라크 바드라 광구 생산 시작으로 해외이익은 2015년 4,000억원을 상회할 전망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몰캡 주간 포트폴리오

I 기업분석실 스몰캡팀

1. 8월 3~4 주차 포트폴리오 (8/18~8/29)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	추천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단기목표가	손절가	편입 비중	기여수익률
엠케이트렌드 (069640.KS)	08월 18일	13,000	13,900	6.92%	14,500	11,500	20%	1.38%
동성홀딩스 (102260.KS)	08월 18일	7,140	7,770	8.82%	8,500	6,500	17%	1.50%
한솔로지스틱스 (009180.KS)	08월 18일	2,590	2,580	-0.39%	3,200	2,450	15%	-0.06%
벽산 (007210.KS)	08월 18일	4,950	5,490	10.91%	5,800	4,700	15%	1.64%
에스피지 (058610.KQ)	08월 18일	6,590	7,020	6.53%	7,200	5,800	10%	0.65%
팜스토리 (027710.KQ)	08월 25일	2,140	2,140	0.00%	2,500	1,800	13%	0.00%
부스타 (008470.KQ)	08월 25일	5,500	5,500	0.00%	6,200	4,900	10%	0.00%

포트폴리오 제외/축소 종목	제외일	기준가	제외당일종가	수익률	비고	기여수익률
엠케이트렌드 (069640.KS)	08월 22일	13,000	13,900	6.92%	8월 22일 종가 기준 10% 편입비중 축소	0.69%
동성제약 (002210.KS)	08월 22일	4,685	6,100	30.20%	8월 22일 종가 기준 13% 편입비중 제외	3.93%

8월 3~4 주차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9.73%

2. 금일 신규 종목 편입 및 제외

- 신규 편입 종목 : 팜스토리, 부스타 / 추천 개시에 따른 신규 편입
- 제외 종목 및 사유 : 동성제약 / 목표 수익률 달성에 따른 편입종목 제외
- 비중 축소 종목 : 엠케이트렌드 /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비중 10% 축소

3. 추천 종목 Financial Data 및 추천 사유

추천 종목	투자 포인트	14년 PER	14년 PBR
엠케이트렌드 (069640.KS)	- 성공적인 중국 진출에 따른 매출 증가 15년 PER 11배 수준으로 중국 관련주 대비 저평가	17.4	0.8
동성홀딩스 (102260.KS)	- 비상장 자회사인 제네텔, 동성애코어의 실적 호전 예상 - 상장 자회사 가치 약 1,800억원, 비상장 자회사 가치 약 1,700억원으로 상승 여력 약 40%	10.7	1.2
한솔로지스틱스 (009180.KS)	- 삼성 그룹형 물류 물량 증가 예상 -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분할 후 영업 회사 실적 개선 여지	14.7	1.0
벽산 (007210.KS)	- 건자재 관련주에서 가장 저평가. PER 14배 - 무기질 단열재 매출 호조에 따른 하반기 실적 호전 예상	15.4	1.4
에스피지 (058610.KQ)	-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의 고성장에 따른 매출 증가 - 신규 사업부(CCTV 동력모터)의 해외 수주 증가	8.7	1.4
팜스토리 (027710.KQ)	- 곡물 가격,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9.9	1.2
부스타 (008470.KQ)	- 동종 업종 기업 대비 저평가 - PER 10배 미만으로 경동나비엔 대비 저평가 국면	9.8	0.8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Chart Book

1. 시장 지표

유가증권시장 지표

(단위: P.%,종목수,원)

구분		08.22(금)	08.21(목)	08.20(수)	08.19(화)	08.18(월)	08.14(목)
KOSPI		2,056.70	2,044.21	2,072.78	2,071.14	2,053.13	2,063.22
등락폭		12.49	-28.57	1.64	18.01	-10.09	0.86
이동평균	이동평균 20일	2,058.69	2,057.19	2,056.40	2,054.20	2,051.57	2,049.89
	이동평균 60일	2,021.77	2,020.79	2,020.22	2,019.30	2,018.37	2,017.62
등락종목	상승(상한)	116 (0)	50 (0)	78 (0)	112 (0)	73 (0)	108 (1)
	하락(하한)	69 (0)	143 (0)	100 (0)	76 (0)	114 (0)	82 (0)
거래량(만주)		27,569	30,491	31,082	32,323	29,802	26,918
거래대금(억원)		34,261	44,398	44,493	42,417	35,898	37,948
시가총액(조)		1,049	1,042	1,059	1,057	1,048	1,054
외국인순매수(억원)		1,047	15	2,344	1,847	-31	1,933
기관 순매수대금(일간)		-483	-3,722	-2,384	-132	-1,636	-1,402
개인 순매수대금(일간)		-339	3,817	947	-1,499	1,827	-226

코스닥시장 지표

(단위: P.%,종목수,원)

구분		08.22(금)	08.21(목)	08.20(수)	08.19(화)	08.18(월)	08.14(목)
KOSDAQ		566.35	562.52	561.96	562.66	561.10	558.18
등락폭		3.83	0.56	-0.70	1.56	2.92	6.45
이동평균	이동평균 20일	551.53	551.19	551.22	551.37	551.33	551.28
	이동평균 60일	547.00	546.70	546.47	546.27	546.00	545.74
등락종목	상승(상한)	538 (12)	405 (13)	440 (16)	413 (9)	476 (13)	635 (8)
	하락(하한)	396 (0)	539 (1)	500 (3)	514 (2)	443 (6)	286 (1)
거래량(만주)		36,873	32,992	32,773	31,899	29,930	29,942
거래대금(억원)		21,522	22,031	23,469	21,539	21,617	22,307
시가총액(조)		137	136	136	136	136	135
외국인순매수(억원)		-63	108	18	-216	-19	318
기관 순매수대금(일간)		136	243	2	-90	-163	321
개인 순매수대금(일간)		-22	-282	121	284	208	-612

주요 관심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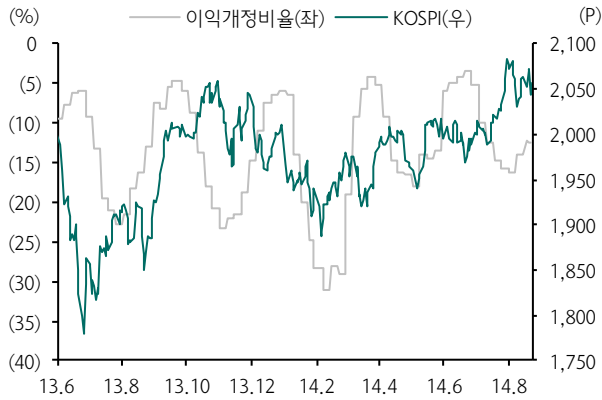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구분		08.22(금)	08.21(목)	08.20(수)	08.19(화)	08.18(월)	08.14(목)
자금동향	고객예탁금		15,641	15,627	15,441	16,082	15,445
	(증감)		14	186	-640	637	-41
	주식형펀드잔고		77,569	77,896	78,147	78,076	78,375
	채권형펀드잔고		63,363	63,316	63,378	62,560	62,254
금리동향	회사채수익률(3년)	2.96	2.96	2.96	2.96	2.95	2.93
	국고채수익률(3년)	2.58	2.58	2.58	2.57	2.56	2.54
환율	원/달러	1,017.70	1,023.60	1,022.70	1,017.30	1,017.60	1,021.20
	엔/달러	103.85	103.71	102.92	102.63	102.37	102.44
	원/100엔	985.99	984.43	989.17	991.62	1,001.22	1,003.66
국제유가	WTI(US\$/배럴)	95.22	95.22	96.19	94.63	96.50	97.29

※ 국제유가: 서부텍사스중질유의 1개월 선물 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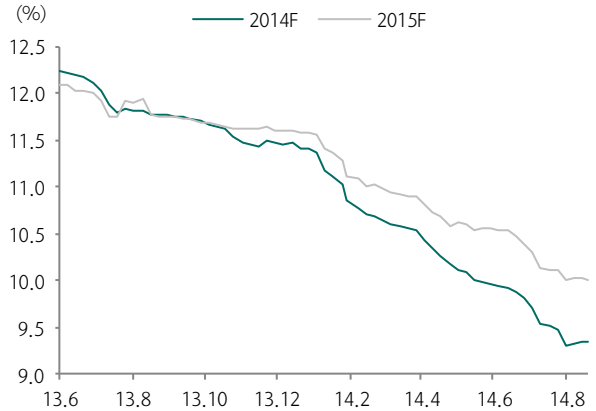
2. 국내주식

KOSPI · 이익개정비율(Earnings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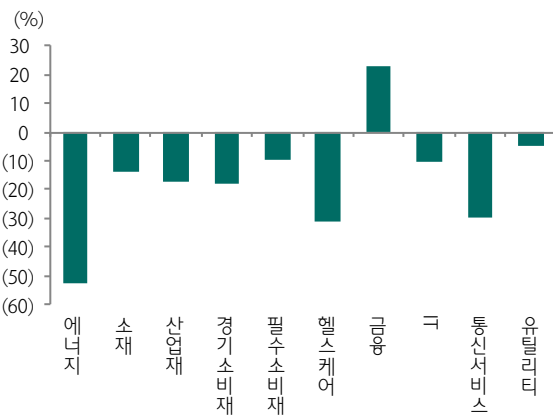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KOSPI 연간 예상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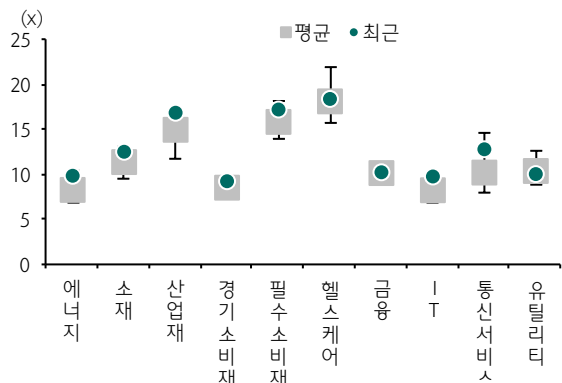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섹터별 이익개정비율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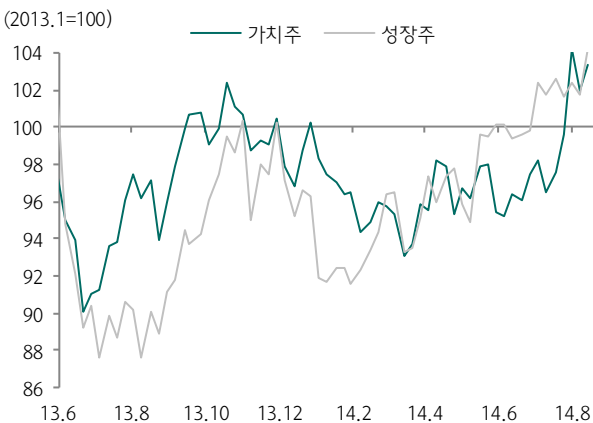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섹터별 PE와 최근 1년 상하위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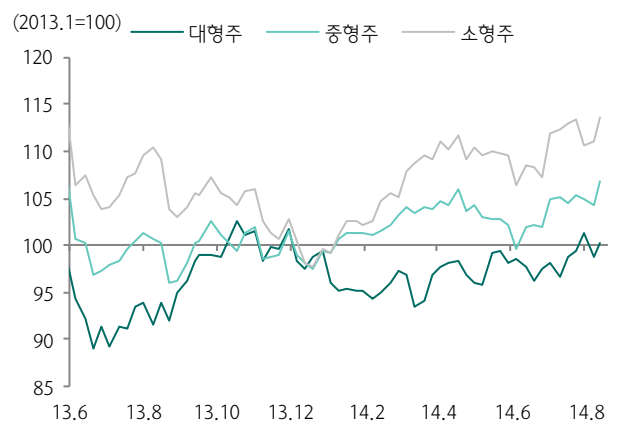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한국증시 가치/성장주 주가지수 추이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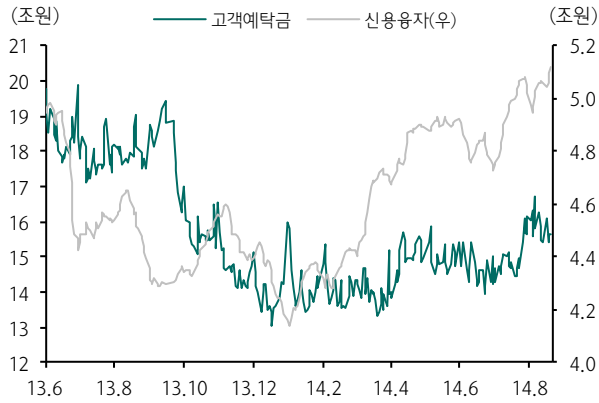
한국증시 대/중/소형주 주가지수 추이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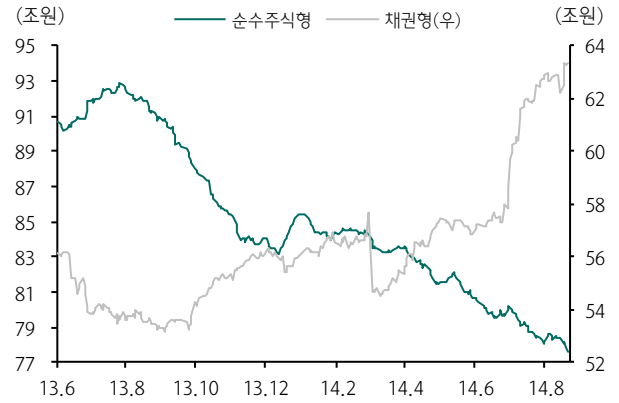
3. 국내주식

고객예탁금 · 신용융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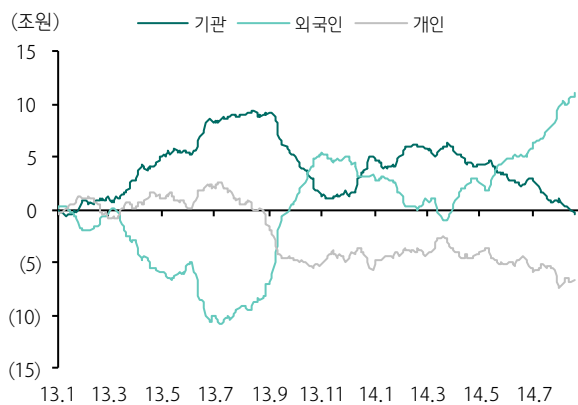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주식형 · 채권형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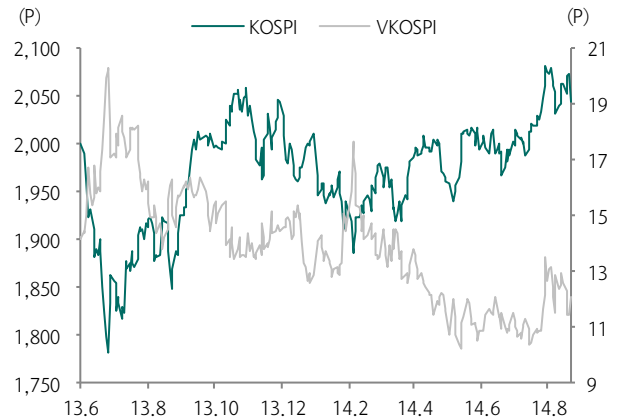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유가증권시장 누적순매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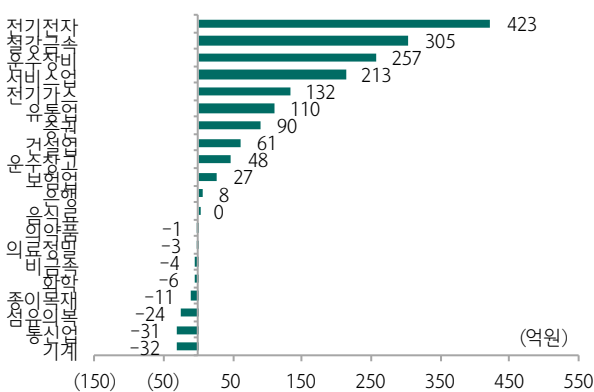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VKOSPI ·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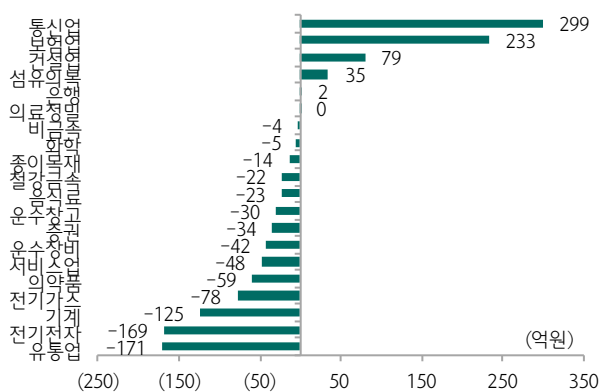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외국인 업종별 매매동향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기관 업종별 매매동향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4. 국내 선물·옵션

KOSPI200 선물 시장지표

(단위: P,계약,억원)

구분	08.22(금)	08.21(목)	08.20(수)	08.19(화)	08.18(월)	08.14(목)
최근월물지수	264.70	262.60	267.00	267.70	265.20	267.00
등락폭	2.10	-4.40	-0.70	2.50	-1.80	0.60
거래량	130,270	156,012	102,811	121,841	123,919	185,558
미결제약정	118,873	125,924	119,774	121,549	120,706	121,220
KOSPI200	263.00	266.70	268.35	265.85	265.85	267.95
Basis(선물-현물)	-1.26	4.17	1.56	-0.77	3.71	0.62
차익	-7	-323	-3	-6	-2	25
비차익	2,036	-3,058	683	815	-1,181	-52
당일순매수	2,029	-3,380	680	809	-1,184	-27
차익거래잔고(매도)	65,225	64,876	64,784	64,800	64,811	64,778
차익거래잔고(매수)	101,996	101,648	101,800	101,813	101,837	101,804

KOSPI200 선물옵션 매매동향: 선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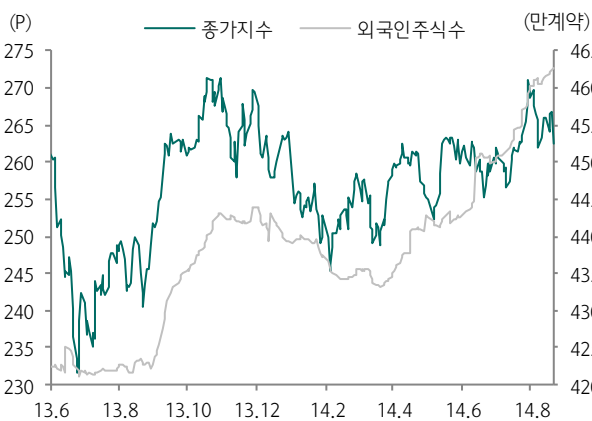
구분	외국인	개인	증권	투신	보험	은행
전일 순매수	-12,439	2,083	10,013	934	-103	252
1주일 순매수	-15,214	3,241	11,322	1,029	295	331
만기일 후	-15,214	3,241	11,322	1,029	295	331

KOSPI 200 선물옵션 매매동향: 옵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천계약,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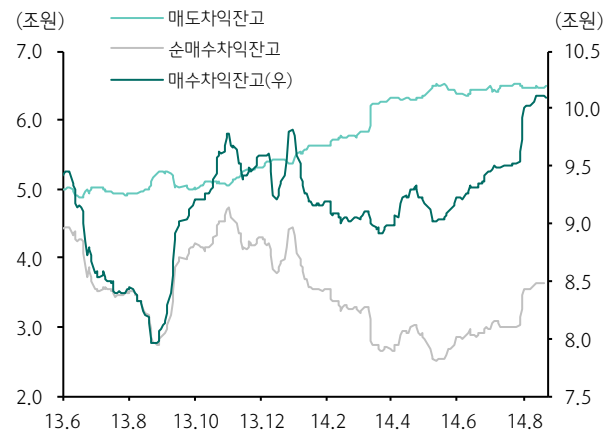
구분	Call						Put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전일	1주일	만기 후	전일	1주일	만기 후	전일	1주일	만기 후	전일	1주일	만기 후
외국인	-2	3	3	-6	-9	-9	-2	19	19	4	74	74
개인	23	35	35	16	-1	-1	-3	-22	-22	-13	-106	-106
증권	-20	-32	-32	-6	18	18	5	7	7	11	73	73

최근월 선물과 외국인 총 선물보유수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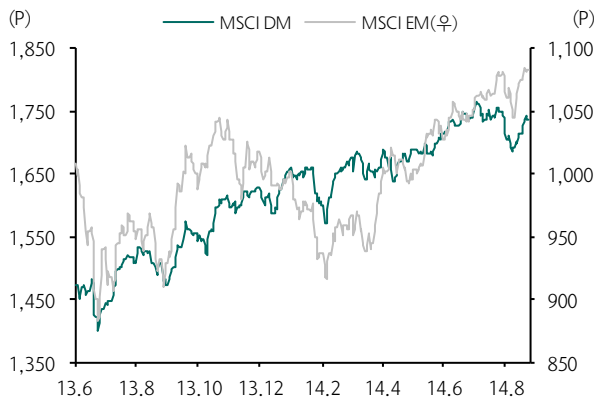
프로그램 매수·매도차익거래 잔고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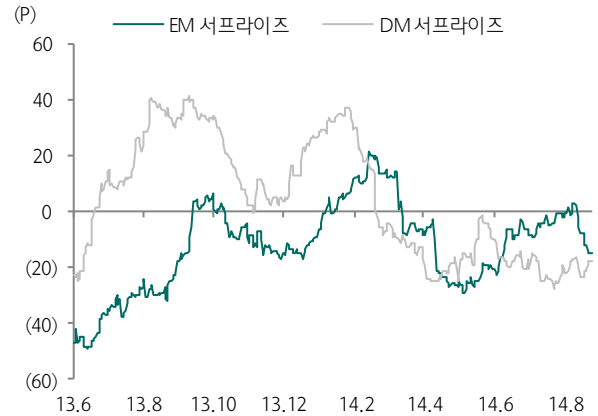
5. 해외주식

MSCI 이머징시장 · 선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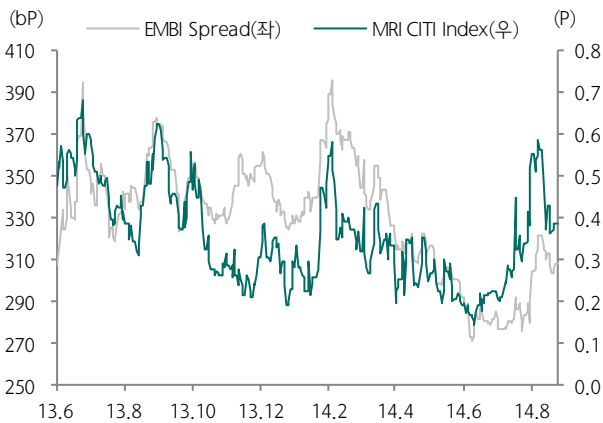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이머징시장 · 선진시장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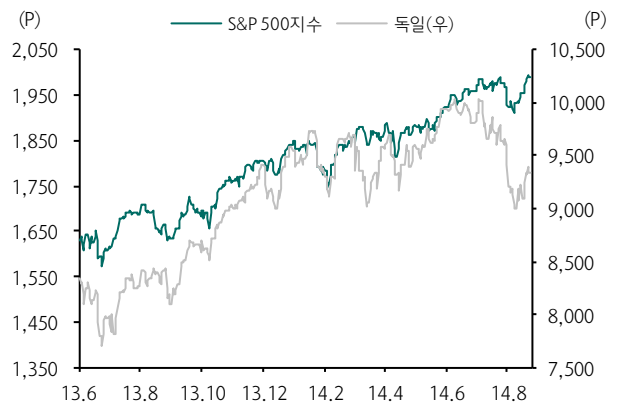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CITI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 EMBI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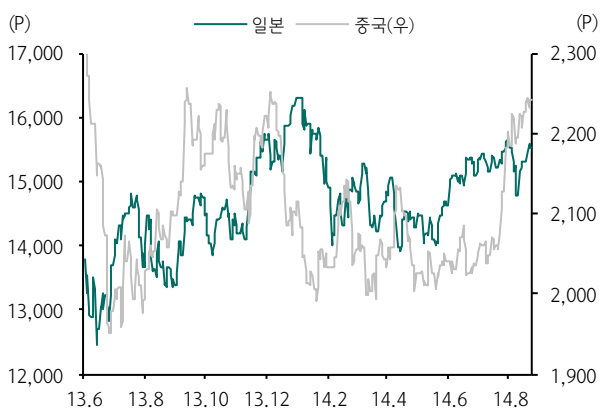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미국 S&P500 지수 · 독일 DAX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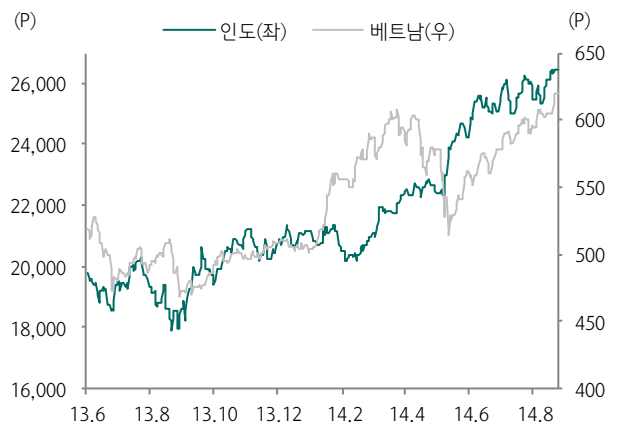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중국 상하이 지수 · 일본 NIKKEI 지수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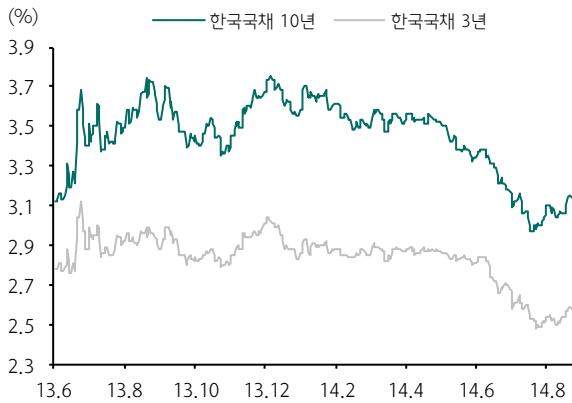
인도 섀넥스 지수 · 베트남 VN 지수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6. 국내채권

한국 국채 금리 3년 ·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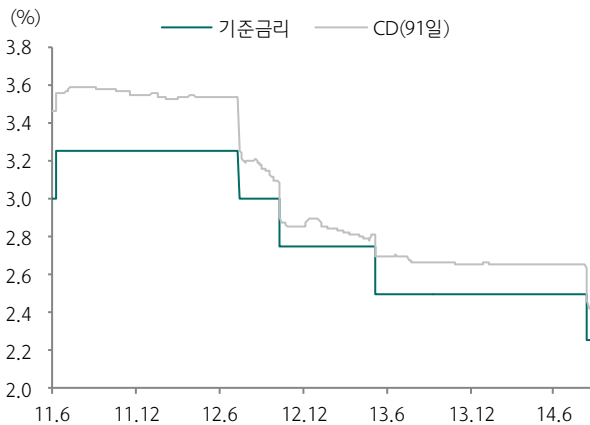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한국 장단기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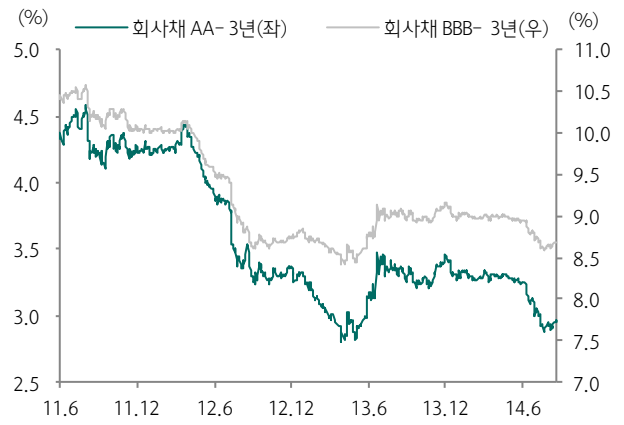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한국은행 기준금리 · CD91일 금리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회사채 AA- · BBB- 3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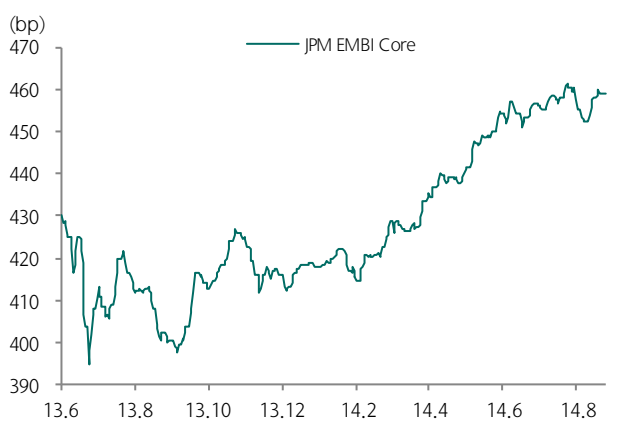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회사채 AA- · BBB- 크레딧 스프레드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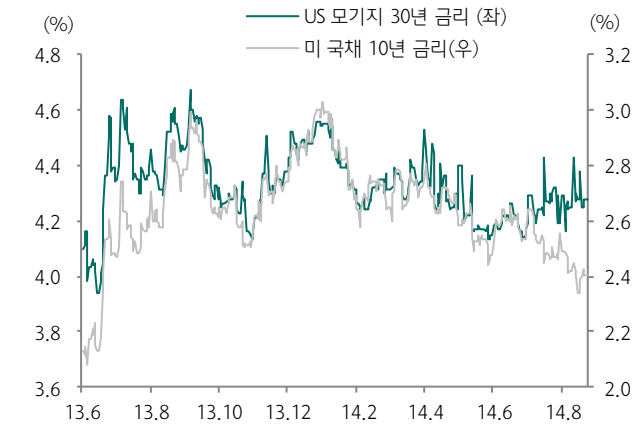
EMBI 인덱스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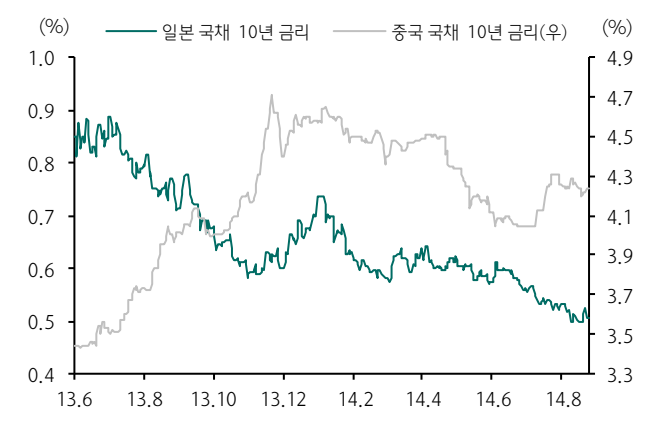
7. 해외채권

미 모기지 30년 · 미 국채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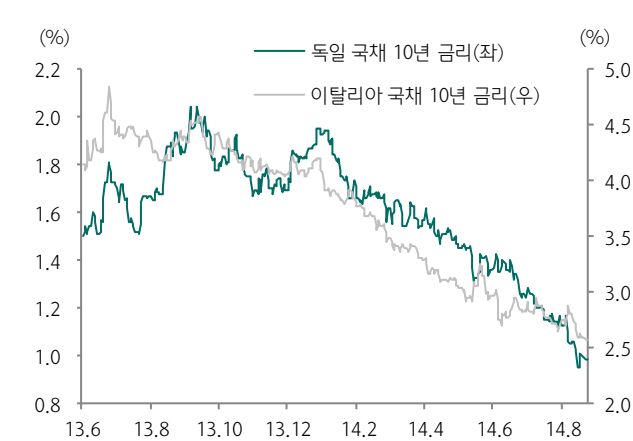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일본 금리 · 중국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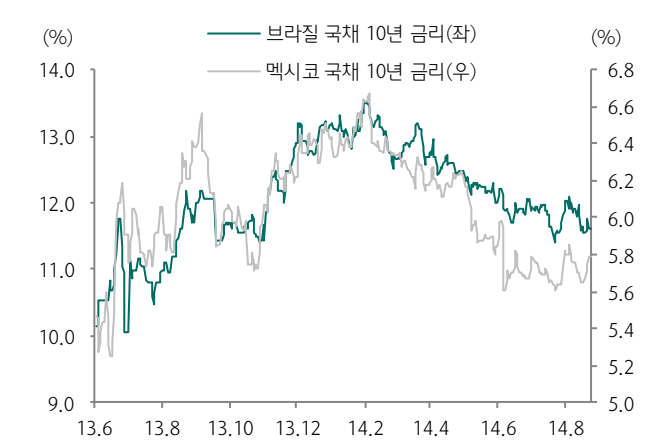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독일 금리 · 이탈리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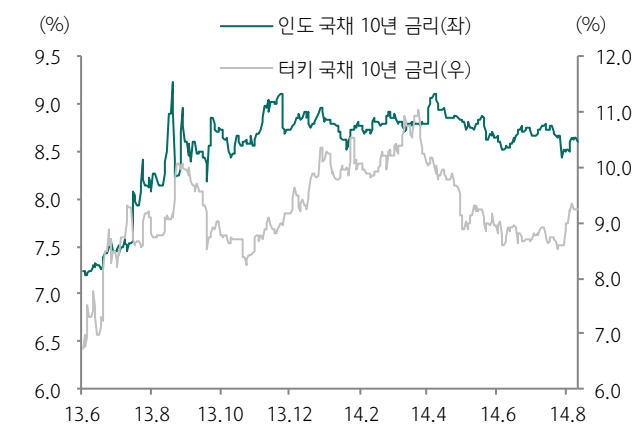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브라질 · 멕시코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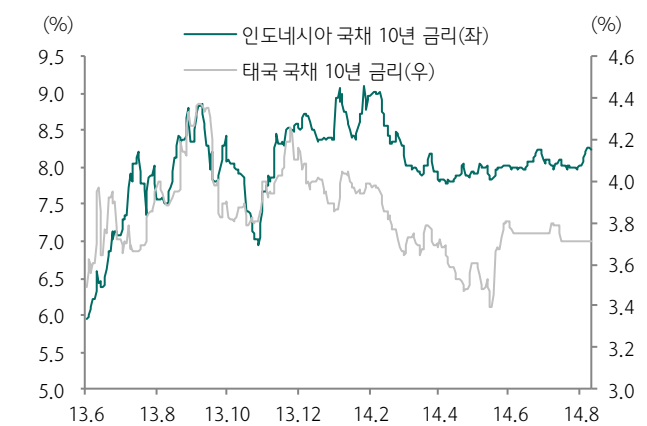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인도 · 터키 금리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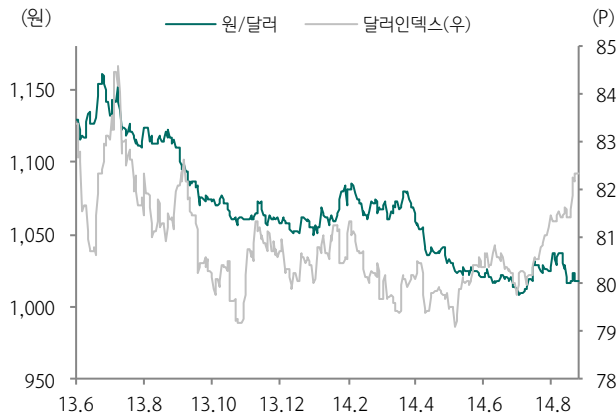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 태국 금리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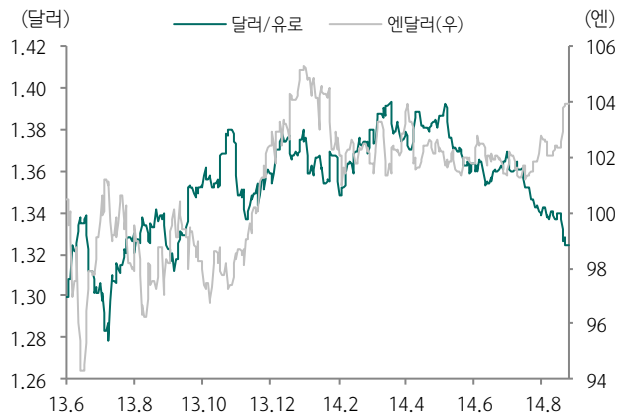
8. 외환(FX)

한국 환율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유럽·일본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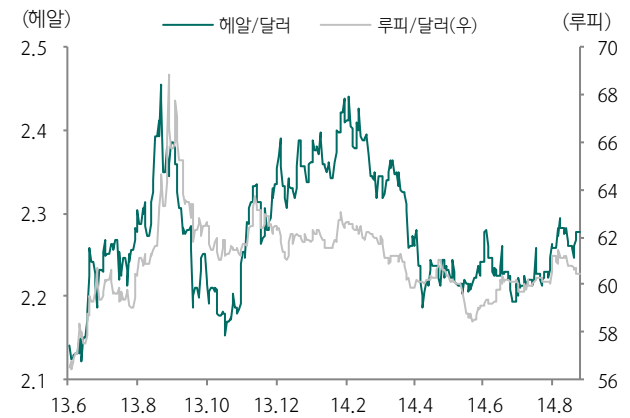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중국·러시아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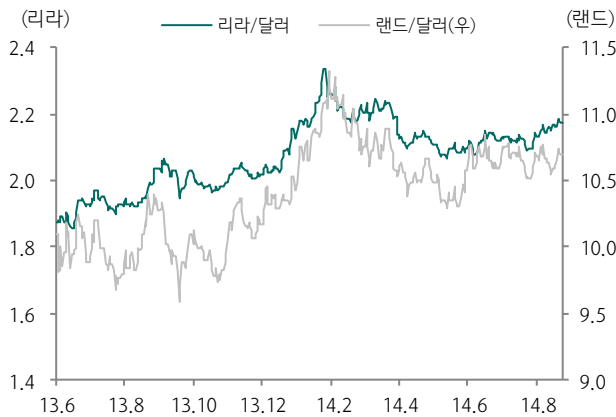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브라질·인도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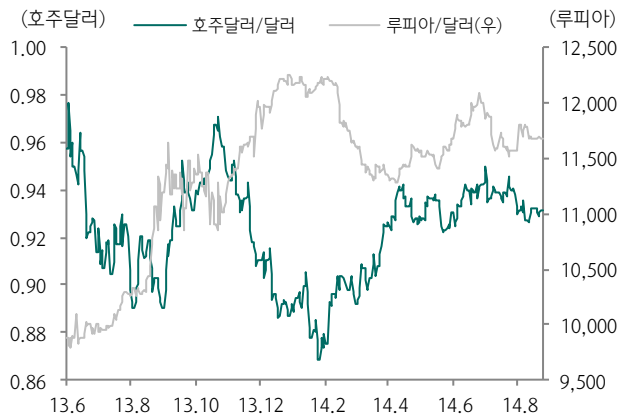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 환율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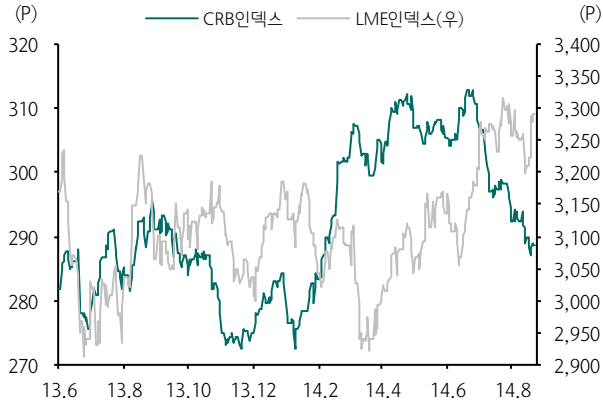
호주·인도네시아 환율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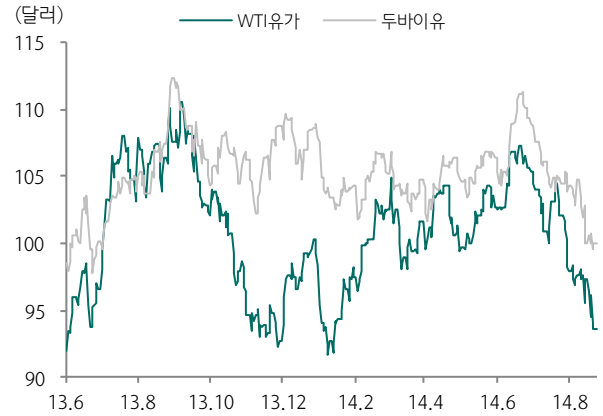
9. 원자재

CRB 인덱스 · LME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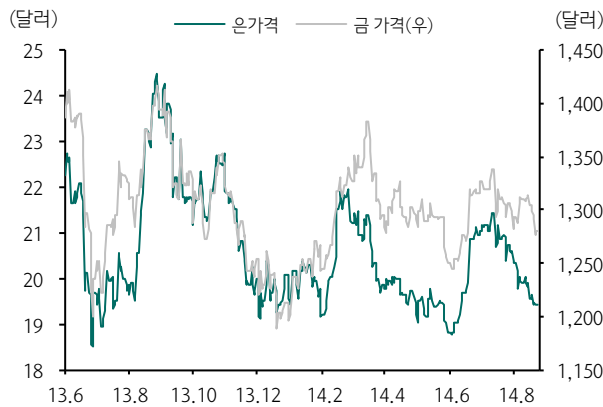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WTI 유가 · 두바이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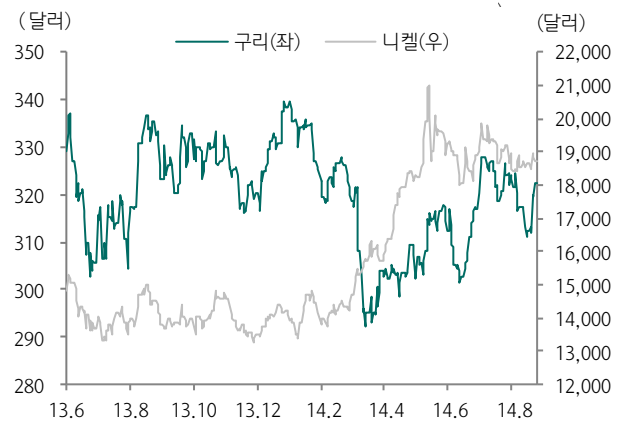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금 ·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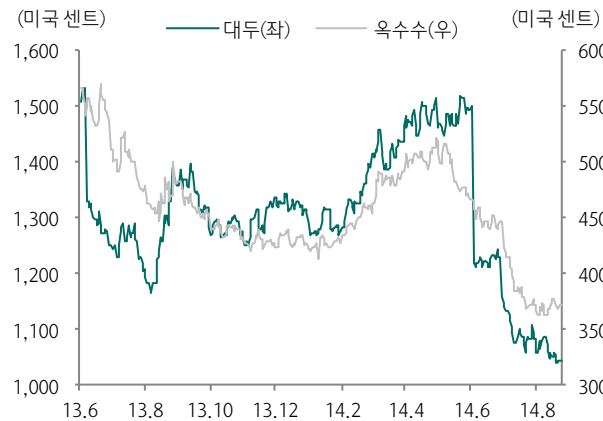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구리 · 니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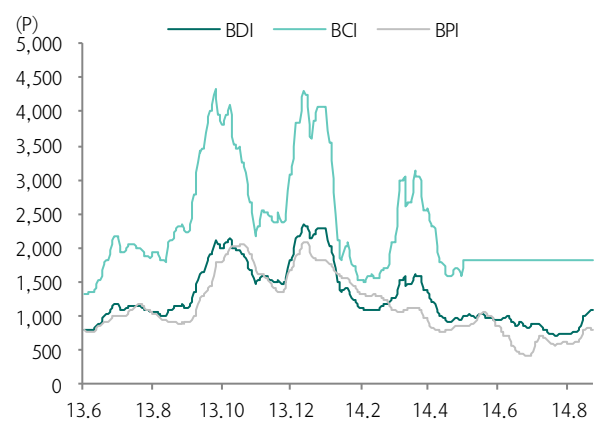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대두 가격 · 옥수수 가격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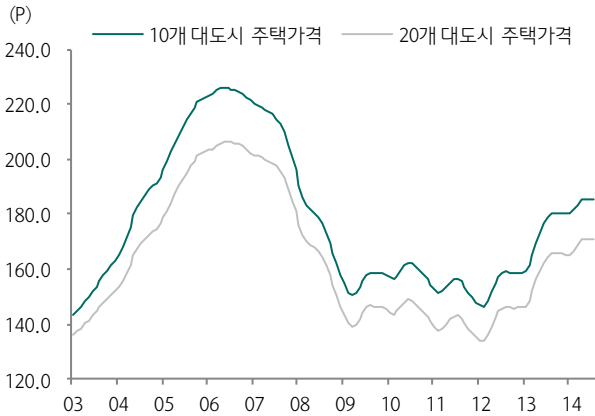
벌크선 운임지수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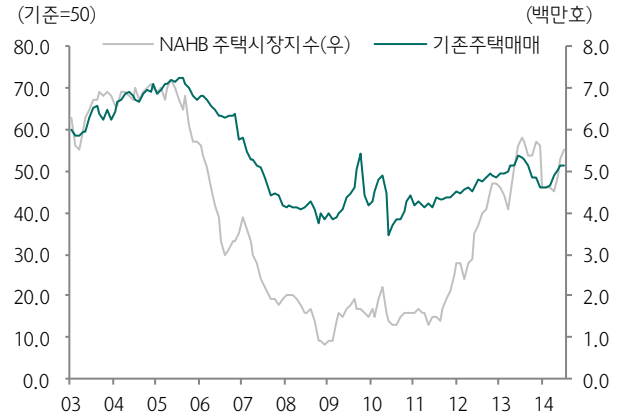
10. 글로벌 금융시장: 부동산

미국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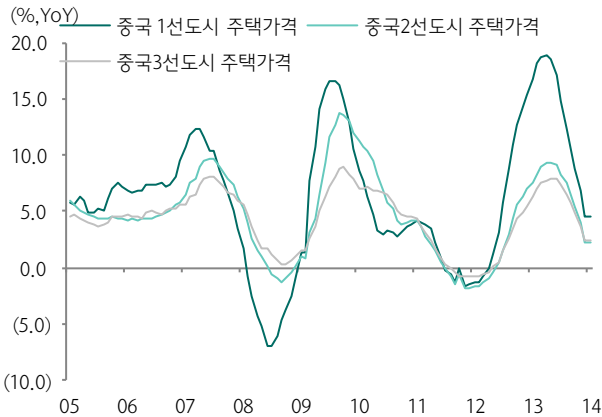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및 기존주택매매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중국 주택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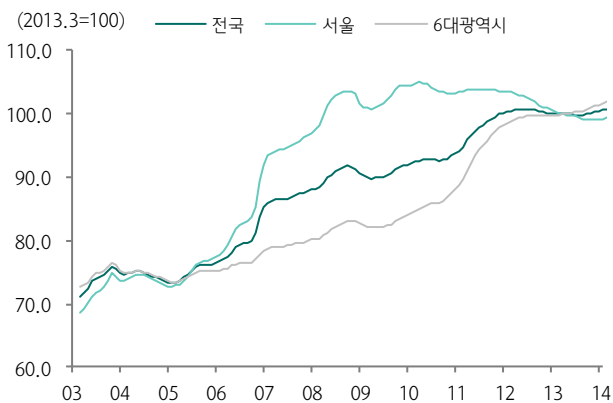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글로벌 부동산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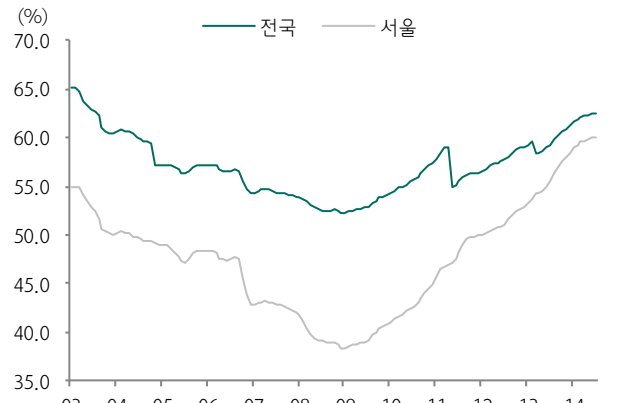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한국 주택가격지수



자료: KB, 하나대투증권

한국 전세/매매 비율



자료: KB, 하나대투증권
주: 2013년 4월부터 기준선 변경

Calendar

8.24 SUN	8.25 MON	8.26 TUE	8.27 WED	8.28 THU	8.29 FRI	8.30 SAT
-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26) [월중][자동차] 신형 쏘렌토 출시 [철강]POSCO:동양파워 인수절차 완료 - 의료법인:호텔,여행 등 부대사업 가능 - 싸이신곡'대디'발표(관심:Y엔터)	- 美 7월 신규주택판매 (E 5.7%, 6월 -8.1%) - 美 7월 시카고연방 국가활동 지수 (E 0.2p, 6월 0.12p) - 美 8월 달라스연준 제조업 활동 (E 12.8p, 7월 12.7p) [금융]프리보드 시장 'K-OTC'(협회장주식시장)으로 거래 시작 - Emmy Award2014 - Blue Economy Forum [테니스]US Open(~9/7) 2014스마트국도엑스포(~28) [휴장]영국(Summer Bank Holiday)	- 美 8월 소비자 기대지수 (E 88.5p, 7월 90.9p) - 美 7월 내구재주문 (E 7.1%, 6월 1.7%) - 美 6월 FHFA주택가격 지수 (E 0.3%, 5월 0.4%) - 美 6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 (E 6p, 7월 7) - 中 7월 경기선행지수 (E --, 6월 100.06p)	- 한 8월 소비자 기대지수 (E --, 7월 105p) - ENTECH2014(~29) - K-PRINT Week(~30) - 베니스데이즈 개막 (개막작: 김기덕 감독의 '일대일') - 북경국제서적박람회(BIBF, ~31) - LaTomatina(세계최대 토마토 축제)	- 美 2Q GDP[잠정] (E 3.9%, 이전 4.0%) - 美 2Q 개인소비[잠정] (E 2.4%, 이전 2.5%) - 美 7월 미결주택매매 (E 0.5%, 6월 -1.1%) - 유 8월 경기기대지수 (E --, 7월 102.2p) - 유 8월 소비자기대지수 (E -10p, 이전 -10p) - 유 8월 산업기대지수 (E -4.5p, 이전 -3.8p) - EU재무장관회의(~29) - 정부(기재부)-S&P: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30) -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9/14)	- 美 7월 개인소득 (E 0.3%, 6월 0.4%) - 美 8월 시카고PMI (E 56.5p, 7월 52.6p) - 美 7월 근원 PCE 디플레이터 (E 1.5%, 6월 1.5%) - 유 7월 실업률 (E 11.5%, 6월 11.5%) - 한 7월 광공업생산 (*E 2.1%, 6월 0.6%) - 한 7월 경기선행지수 (*E 0.2%p, 6월 0.2%p) - EU외무장관 회의(~30) - Korea Rural Goods Show 2014(~31) [반도체]하반월NAND/DRAM 고정가격[P] - 손해보험5개사 및 코리아리 월별실적 - 중소형 지주사 실적 발표[P]	- 대구단편영화제(~9/3) 2014 세계태권도한마당(~24) 2014 세계 남자 농구월드컵(~9/14)
8.31 SUN	9.1 MON	9.2 TUE	9.3 WED	9.4 THU	9.5 FRI	9.6 SAT
- Salzburg festival(세계 3대 음악축제) 폐막식 2분기 핸드셋/스마트폰 판매량 Data	- 유 8월 제조업PMI (E --, 7월 51.8p) - 日 2Q 자본투자 (E --, 1Q 7.4%) - 日 8월 제조업PMI (E --, 7월 50.5p) - 中 8월 제조업PMI (E 50.5p, 7월 51.7p) - 韓 8월 수출 (*E 1.0%, 7월 5.4%) - 韓 8월 수입 (*E 8.4%, 7월 5.8%) - 韓 8월 제조업PMI (E --, 7월 49.3p)	- 美 8월 제조업PMI (E 56.7p, 7월 57.1p) - 美 7월 건설지출 (E 0.8%, 7월 -1.8%) - 유 7월 PPI (E --, 6월 0.1%) - 中 7월 경기선행지수 (E --, 6월 100.06p) - 韓 8월 CPI (*E 1.7%, 7월 1.6%)	- 美 7월 제조업수주 (E --, 6월 1.1%) - 유 7월 소매판매 (E --, 6월 0.4%) - 유 2Q GDP[확정치] (E --, 1Q 0.2%) - 기재부-Moodys: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5) - 일본 경제팀 유임 예정 - 삼성전자 UNPACKED: 갤럭시노트4 공개	- 美 8월 ADP비농업부문 취업자수 변동 (E 210K, 7월 218K) - 美 7월 무역수지 (E -\$42.3B, 6월 -\$41.5B) - 韓 2Q GDP[확정치] (E --, 1Q 0.9%) - Fed's Beige Book 공개 - 일본 BOJ 2014년 본원통화 목표 NATO 정상회담(~5) - Fed's Powell Speech - 글로벌 섬유패션 빅데이터 컨퍼런스	- 美 8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E 208K, 7월 209K) - 美 8월 실업률 (E 6.1%, 7월 6.2%) - Fed's Kocher Lakota Speech - IFA2014(~10,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삼성Tizen '스마트글래스' 공개여부 2014광주비엔날레(~11/9) [축구]친선A매치(한국 vs.베네수엘라)	- 중국 중추절(~8) - Fed's Plosser speech [분할]태영건설 (준속: 태영건설, 신규: 블루원리조트) [분할]만도 (준속:한라홀딩스, 신규: 만도) - 보아 일본 전국투어(~23, 관심:SM)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는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